

2022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에 대한 시선



발간사

우리 운동본부는 “장애인식개선의 시발(始發)은 언론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996년부터 언론 모니터를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향상과 긍정적인 대중매체 환경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장애차별 해결을 위한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여 언론뿐 아니라 방송과 포털 등 다양한 매체의 장애인식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장애 용어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차별 표현 사용의 주의를 촉구하고 바른 표현 사용을 안내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결과, 언론의 비하용어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2022 모니터 보고서 - 장애에 대한 시선’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이동권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과 이에 따른 언론의 보도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운동본부에서 기획한 역대 언론 모니터 자료를 분석해 15년 동안 장애인 관련 언론 기사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 올바른 장애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이수성

2022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에 대한 시선

CONTENTS

발간사	01
I. 2022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 배현정	05
II. 2022년 '이달의 좋은 기사' & '올해의 좋은 방송' & '올해의 좋은 유튜브' / 사무국	19
III. 2022년 장애인 비하 용어 모니터링 분석 / 서문원	39
IV. 기획모니터 1	
1. 제42회 '장애인의 날' 언론 모니터 / 김철환	63
2. 역대 '장애인의 날' 언론 보도 분석(2008년 ~ 2022년) / 서문원	81
V. 기획모니터 2	
3. 언론에 비친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 송경재	97
4. 장애인단체 시위와 장애인이동권 / 김주현	111
5.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장애인 정책 기획모니터 / 백정연	123
6. 2022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미디어 속 장애인 / 김현식	137
부 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155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161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70

2022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배현정

중앙SUNDAY 기자

I. 들어가는 말

2022년 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세 남매의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했다. “경기도는 혼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대사에서처럼, 주인공은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노른자의 삶’을 동경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의 (직장) 접근성,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그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삶의 시간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노른자의 삶’은커녕 ‘흰자의 삶’도 누릴 수 없는 이들의 절규는 외면되고 있다면 어떡할까.

장애인은 그런 출퇴근의 애환조차 누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2022년 언론에 가장 노출된 이슈였다. 그러나 GTX 도입을 서두르는 목소리는 있어도, 고속·시외버스 중 교통약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시내버스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도 2020년 기준 서울만 57.8%에 이를 뿐 광역시는 20~30%다. 지방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2022년, 언론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2022년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장애 관련 이슈 중 어떤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도했는지를 살펴본다.

II. 장애 관련 이슈 보도

2022년 10대 종합일간지는 장애, 장애인 관련 뉴스를 얼마나 보도했는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검색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대 중앙일간지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13,108건이었다. 이는 2021년에 ‘장애인’ 단어가 포함된 기사 11,705건과 비교해 볼 때, 약 11.98%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10대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는 다음 표와 같다. 보도량으로는 2020년, 2021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기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일간지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 추이

(단위 : 건, %)

기사별 \ 연도별	2020	2021	2022
전체 기사	11,506	11,705(★1.72)	13,108(11.98)

★퍼센트(%)는 각각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한편 장애 전문언론 ‘에이블뉴스’는 2022년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말결산 특집기획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4가지 주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키오스크, 근육장애인-척수성 근위축증, 장애인 예술 등이었다. 이 글에서는 4가지 이슈에 더하여 올해 대중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장애인 이동권을 추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슈별 보도량은 다음과 같다.

〈표〉 주요 10대 일간지 장애 관련 이슈 보도량

(단위 : 건)

이슈 \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5	0	0	0	0	1	1	1	4	1	13
장애인 키오스크	22	8	11	5	8	7	3	7	12	5	88

근육장애인 척수성 근위축증	0	0	1	0	0	0	0	0	1	1	3
장애인 예술	62	131	46	35	70	66	32	63	83	47	635
장애인 이동권	233	122	77	26	171	284	79	113	203	136	1444
계	322	261	135	66	249	358	115	184	303	190	2,183

Ⅲ. 이슈별 보도 흐름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지난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심의를 통해 79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가 발표됐다. 2014년 ‘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뤄진 후 8년 만이다.

에이블뉴스에 따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수어법·점자법·탈시설 로드맵 등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인 구분제도와 여성장애인과 아동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 등의 치료와 후견제도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발효된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후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값진 행보라 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러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은 독자들이 읽은 ‘22년 장애인계 결산특집’의 첫 번째로 소개했다.

이러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보도는 장애인운동의 굵직한 발자취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사와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키워드로 2022년 주요 10대 일간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총 13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이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사 중 1~2문장 언급된 기사를 제외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진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는 단 한 건뿐이었다.

- 유엔 간 장애인단체 “한국 정부, 유엔 권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사회〉장애인, 2022-08-26, 한겨레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을 찾은 국내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협약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결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장애계연대)는 25일 오후 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후 2011년, 2019년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9년에 제출한 제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오는 9월 9일까지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현지에서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참관한 장애계연대는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에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위원회의 장애인 여성 위원 11명은 한국 정부에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장애 여성의 공공영역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답변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며 “장애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여성 지원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국 정부는 여러 수치 나열을 통해 협약의 인권적·권리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위원들에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계연대는 지난 21일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22일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23~25일 심의 참관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발표되는 10월까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과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한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 등의 치료와 후견제도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 여성·아동 정책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키오스크

“자영업자는 반색, 노인은 운다…월 8만원에 부리는 ‘이 알바’” 지난해 8월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이 ‘알바’는 키오스크(무인계산대)다. 비대면 문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키오스크가 일상 곳곳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요식업과 생활편의시설 등 민간 분야의 키오스크 사용은 지난 2019년 8,587대에서 2021년 26,574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수많은 상점에서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장애인과 어르신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5~8월 서울·경기도 소재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정해 케이에스 표준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대체 콘텐츠를 적용한 경우는 전무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 화면 높이를 1,220mm 이하로 설치해야 하지만, 17대(85.0%)는 기준보다 높게 설치됐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 울린 키오스크, 언제쯤 말할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해 ‘가장 많이 읽은 기사’의 두 번째로 꼽았다. 일상에서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유리 장벽인 까닭일까. 장애인 당사자의 공감대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내돈 내산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였다.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 캠페인은 국민일보·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됐고, 어르신·장애인의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불편”...고령자·장애인 “난감”, 주차장 키오스크 앞에서 1시간 해매...표준 안 지켜 ‘약자들’ 골탕, 2022-11-24, 한겨레
- “키오스크는 고문기계”...세상은 변한다, 노인들이 못 쫓아오게[투명장벽의 도시④], 022-10-18, 경향신문
- 자영업자는 반색, 노인은 운다...월 8만원에 부리는 '이 알바' 2022-08-07, 중앙일보
- 아무리 귀를 갖다 대 봐도... '말 없는' 키오스크 [사진잇슈], 2022-07-13, 한국일보
- “무인주문기는 유리 장벽”... 시각장애인, 햄버거집 줄 선 이유, 2022.07.12, 국민일보

장애인 키오스크에 관한 상당수 기사는 이러한 불편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을 배려한 키오스크가 도입됐다는 홍보 정도로 아쉬움을 남겼다.

- 수어로 “카드 만들겠다”고 하자... 키오스크 속 직원도 수어로 안내, 2022-12-19, 동아일보
- 성동, 시각·청각장애인 배려한 민원 키오스크 도입, 2022.12.23, 서울신문

2021년 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명시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개발에 따른 삶의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2023년 1월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선 소규모 시설(바닥면적 50㎡ 미만)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악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서 심도 있게 다룬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일반 제품가격의 4배... 식당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반발’, 2022-12-26, 문화일보
- 남녀노소 모두 쓸 ‘착한 키오스크’ 스마트 상점계가 해법 찾는다, 2022-07-20, 동아일보

장애인 키오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산업계의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가의 장비와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무장애 공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오로지 영세 자영업자에 돌리는 것도 무리한 일이다. 정부가 법 제정과 시행에 앞서 무장애 시설과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안을 고민하고 촉구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3. 근육장애인 - 척수성 근위축증

에이블뉴스가 2022년 장애인계 결산으로 꼽은 특집 가운데 세 번째 이슈는 ‘근육장애인 -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보도였다.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 단백질 결핍으로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질환이다.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으나 2016년 최초 치료제인 ‘스핀라자’가 개발·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졸겐스마’와 ‘에브리스디’가 시중에 나왔다. 그러나 눈앞에 치료제가 있음에도 억 소리 나는 가격과 높은 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실제 스핀라자의 경우 보통 1년에 3~4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치료제로, 주사 1회당 비용은 약 9,235만원이다. 원샷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졸겐스마는 유아기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치료제로, 1키트 당 약 19억 8,173만 원에 달한다. 이들 약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본인 부담 상한으로 인해 598만 원으로 줄어든다.

- '1회 20억' 근육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 8월부터 건보 적용, 2022-07-20, 한국일보
- 영유아 희귀질환 '척수성 근위축증'을 아시나요? 2022-02-09, 동아일보
- “서서히 근육 마비되는데, 3살 이전 발병 어떻게 입증해요” 2022-02-16, 한겨레

정부는 졸겐스마 치료와 관련하여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결정을 내렸으나, 신규 진단 환자와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7명씩 14명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 대상 연령은 생후 12개월까지이다.

스핀라자 치료의 국내 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만 3세 이전에 질환에 대한 기록이 없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성인기에 발병한 환자나 3세 이전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역대 비용을 감당키 어려워 사실상 치료의 기회가 닫혀있다.

이러한 근육장애인 -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보도는 ▲치료제 졸겐스마주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알리는 기사 1건 ▲건강 보험 적용의 높은 문턱을 알리는 기사 1건 ▲척수성 근위축증 장애인을 위한 캠페인 기사 1건 등 주요 10대 일간지에서 단 3건이 보도하는 데 그쳤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임에도, 소수의 외침이어서 사회에 울려 퍼지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언론은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비추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예술

“올해는 장애인예술의 획기적인 해다.”

지난 12월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50명 장애예술인의 경력이 수록된 ‘2022 장애 예술인수첩’을 발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57번째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예술인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이어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장애인 예술은 이제 시작이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 주요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 예술’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기사 수는 635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에이블뉴스가 ‘2022 연말결산’으로 꼽은 4대 이슈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13건), 장애인 키오스크(88건), 근육장애인-척수성 근위축증(4건)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전년 같은 조건으로 검색한 ‘장애인 예술’ 435건과 비교해서도 200건이나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 예술 르네상스의 시작일까, ‘그들만의 리그’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적으로도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우영우에 고래 있다면, 제겐 시계죠” 청와대 가는 화가 사연, 2022-08-27, 중앙일보
- 화가로 돌아온 정은혜 "내 그림엔 실수 없는 거예요", 2022-08-24, 한국일보
- “장애는 예술을 방해 못했다”...마음을 그리는 현실 속 ‘우영우’들[전승훈의 아트로드], 2022-09-10, 동아일보
- “발달장애인은 그림 통해 성장과 소통”, 2022-10-12, 동아일보
- 청와대 첫 전시회 주인공은 장애인 작가들, 2022-09-01, 국민일보
- 이지원씨 발달장애인 최초 경기민요 전수자 시험 합격, 2022-10-04, 국민일보
- ‘바닥’과 ‘구석’에서 빛고 그린 ‘거위의 꿈’...도자작가 이안옥 작품전, 2022-11-30, 경향신문

2022년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배우 한지민 씨의 언니 역으로 출연한 발달장애인 정은혜 씨가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크게 주목 받으면서, 장애인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언론에 비치는 장애인의 모습도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예술인의 이미지로 부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개방한 청와대의 첫 전시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열렸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 시각장애인 위한 3D프린팅 명화전시회, 2022-11-24, 국민일보
- 무용 공연을 진동과 음성으로... 대학로예술극장 배리어프리 무용공연, 2022-10-30, 국민일보
- 배역마다 ‘수어통역 그림자 배우’가 붙는다... 국립극장 무장애 음악극 ‘합★체’ 선보여, 2022-08-24, 세계일보

장애인 예술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화 전시회, 진동과 음성으로 느끼는 무용공연·무장애 음악극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물이 없는) 공연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에 대해 사회도 인식하고, 작품을 준비할 때 적용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10, 국민일보
- 장애예술인 공모 지원금 3배로...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계획', 2022-09-08, 경향신문
- 창작활동 평균 연수입 218만원... 장애예술인 다각도로 지원한다, 2022-09-08, 세계일보

지난 7월에는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3법'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결실도 나왔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관련 예산이 2,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됐다. 그러나 창작활동 평균 연 수입이 약 200만원에 불과한 장애예술에 대한 지원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이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변화 과정과 지원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이동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장애인 관련 뉴스의 단연 뜨거운 '이슈 메이커'였다. 장애인 이동권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목받았던 사안이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사건을 발단으로, 전장연은 도로와 지하철 등에서 20년이 넘게 치절한 외침을 전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지난 3월 25일 당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도화선이 됐다.

올해 주요 10대 일간지에서 보도한 장애인 관련 기사 수만 1444건. 지난해 258건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제 전장연을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만큼, 전장연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한해였다.

그러나 오랜만에 장애인 이슈에 집중된 우리 사회 뜨거운 관심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었다. 그 관심의 상당 부분이 혐오와 편가르기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혐오 발언이 너무 많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쏟아지는 댓글, 전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요 일간지들도 ‘불법’·‘불편’·‘극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혐오 단어를 담은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러한 관점의 접근에서 어떻게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출근길 시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장애인 운동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키울 수 있는 보도는 숙고해야 한다.

- 장애인시설 예산 줄자...전장연 “휴전 끝”, 2022-12-25, 한겨레
- 법원, 전장연 시위 중재안...“19개 역사에 승강기 설치 제안”, 2022-12-21, 중앙일보
- [사설] 전장연 기습시위, 불법 방치 말라는 시민 요구 커진다, 2022-12-20, 서울신문
- 전장연 제럴라 시위에...與 “극단적 이기주의”, 2022-12-20, 조선일보
- 시민들 교통 불편에...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검토, 2022-12-09, 세계일보
-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출근길 5호선 약 1시간 지연, 2022-11-10, 세계일보
- 장애인 이동권 요구하며 버스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집유, 2022-10-18, 문화일보
- 김재섭 “전장연, 시민에 극심한 불편...탈시설 범죄 혐의 연루”, 2022-09-13, 문화일보

반면에 장애인 이동권의 발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기사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고민하고, 동네 가게에서 작은 경사로를 만드는 등,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 “엘리베이터 없는 우리 학교, 장애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요?”…울산 학생들이 여의도로 온 이유는, 2022-11-23, 경향신문
- 작은 경사로가 만드는 이동권…동네 가게 낮은 문턱 없앤다[서울25], 2022-10-26, 경향신문
-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 때 비장애인보다 최대 18배 더 이동", 2022-08-05, 한국일보
- 장애인도 아무 버스 타는 세상, 10년 걸린다…“이동권은 기본권”, 2022-09-27, 한겨레
- 서울대 학생 545명 “전장연 향한 혐오 메아리 부끄럽다”, 2022-05-26, 한겨레
- 국민 과반 “장애인 지하철시위 공감… 갈등은 정치권 책임”[장애인 이동권, 갈등 넘어 연대로], 2022-07-11, 서울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 계획안에는 2021년 말 기준 30.6%인 저상버스 보급률(운행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의 비중)을 2026년까지 62%로 높인다는 플랜이 담겨있다. 현재 서울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59.7%로 높은 편이지만 경기 19.2%, 울산 12.1%, 충남 9.9% 등 일부 지역은 매우 낮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도입은 아직 요원하다.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화가 아닌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의 기본 권리이자 사회생활을 위한 발판이 되는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요구된다.

IV. 나오며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계 이슈를 주요 10대 일간지가 얼마나,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키오스크, 근육장애인, 장애인 예술, 장애인 이동권 등 5개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이슈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컸다. 2022년 드라마와 정치를 통해 이슈가 재생산되고 부각된 장애인 예술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룬 기사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기사가 쏟아진 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 운동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안도 주요 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관심이 있으면 문제와 개선점이 보이는 법이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소수의 목소리도 묻히지 않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핫이슈를 넘어, 장애인 일상 곳곳의 현실을 비출 수 있는 거울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이달의 좋은 기사 & 올해의 좋은 방송 & 올해의 좋은 유튜브’

I. 선정 기준

우리 운동본부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 관련 문제를 다룬 보도를 취합해서 분석한 후, 우리 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1건씩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장애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 중 인식개선과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우리 운동본부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기준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올해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작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올해의 좋은 유튜브’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 장애인 인권 보도 준칙*을 준수하였는가?
사회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를 통해 문제해결, 정책·제도 개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확산 등 실질적으로 장애 인권 구현을 위해 사회에 공헌했는가?
장애 인권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았는가?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비장애인 공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현실을 알려서 공감하도록 하였는가? · 장애인복지 전문용어나 장애인 계에서 통용되는 말을 풀어서 사용하였는가?
보도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기사의 가치	· 직접 취재·취재원 존재 유무·취재목표 반영·반론·부연 설명·실용적 정보 유무·전문용어 사용 등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가?
--------	--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구분	내용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③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는가? ④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했는가? ⑤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②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했는가? ③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④ 장애인 촬영 시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보도준칙)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⑥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에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묘사하기 -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 장애(인) 관련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장애와 관련된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였는가?
사회적 영향력	· 시청자의 장애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 기타 장애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는가? ·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가?

<p>제작자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 장애인 촬영 시 장애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초상권,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는가? · 장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이상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는가? · 성공한 장애인을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보여주었는가?
<p>방송의 완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도 있는 방송을 제작하였는가? · 기획이 참신하고 제작기법 및 내용 전개가 독창적인가? ·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가?

〈올해의 좋은 유튜브〉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 용
<p>장애인 이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p>사회적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통해 문제해결, 정책·제도 개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확산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권 구현을 위해 사회에 공헌했는가?
<p>장애인권 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았는가?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II. 선정 기사

1월 매일경제(박홍주·한상헌 기자 / 1월 3일)

장애인 한달째 지하철 시위...대체 무슨 일이

매일경제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사회

장애인 한달째 지하철 시위...대체 무슨 일이

전동휠체어 탄 전장연 회원들
오전 8시에 고의 승하차 반복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4개법안
국회에 조속한 처리 요구
이동편의증진법은 본회의 통과
"출근길 불편" "응원" 시민 찬반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전장연은 지난월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탑승 구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홍보]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는 지하철 기습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멈추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라는 옹호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부터 오전 8시가 되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운행을 방해하는 기습 시위로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습 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있었지만, 12월 들어서 주 1회 수준으로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출근 시간에 시위를 벌여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장애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불편함으로 치부해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해결할 문제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반복되는 지하철 기습 시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가 11건 발생했다"며 "평생교육 같은 의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데 지하철 시위를 계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0분께부터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20분 정도 진행된 기습 시위로 인해 시민들 민원이 75건, 환불 요구가 257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는 전장연 측에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4개 법안이다. 이중 저상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장연은 상임 위원회에 계류된 나머지 3개 법안의

법의 시행령 안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권을 전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 차질피열 미뤄진 것도 장애인들의 강경 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1년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을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4년 서울에서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는 1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 역사 284곳 중 22곳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리프트 사고는 모두 17건이며 그중 4건은 사망사고다.

지속되는 장애인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대학생 양모씨(23)는 "좋게 말해서는 상황이 확 바뀌지 않으니 사회에 충격을 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함께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모씨(25)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지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 괜히 반감만 생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째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벌이는 피켓 시위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불편하다'와 '응원한다'로 갈리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시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그 어느 때 보다 여론이 뜨겁다. 출근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할 사회적 과제로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사는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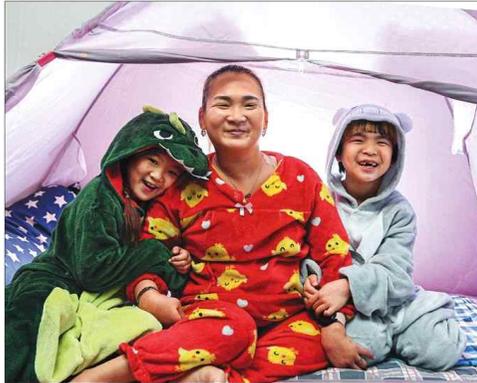
2월 국민일보(권기석·권민지·이동환 기자 / 2월 15일)

‘못 보고 못 걸어도... “출산·양육은 벅찬 행복”[이슈&탐사]’의 6건

국민일보

2023년 2월 15일
이슈 & 탐사

못 보고 못 걸어도... “출산·양육은 벅찬 행복”



낙태반장재인 장미란씨가 지난달 5일 전북 전주 자택에서 자녀들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에 없는 ‘막내딸’까지 세 아이를 키우는 장씨는 “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이영남 기자

우라도 부모입니다

장애인의 자녀 양육 분투기

(1) 편견에 맞서다

14개월 아기 둔 시정각 장애인

“나도 한 인간이자 여자입니다”

“아이가 14개월이에요. 한 번은 제 가방을 메고 백경기 바깥 도망 다니는 게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추억은 마음에만 남기고 있어요.”

딸 사진을 찍지 못하는 엄마, 아홉살(7명, 29)씨는 시정과 청각 모두 장애를 가진 시정각 중핵(데르블라인드-Deaf-Blind) 장애인이다. 시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청력은 보청기를 끼야 겨우 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보청기를 꺼도 안방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 거실에서는 잘 못 듣는다. 두 살 많은 남편도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다.

부부는 고교 시절 특수학교 선우배교(7명, 29)에서 만나 2011년 결혼했다. 둘째아들(10명, 11)은 시정각 장애인이다. 시력은 거의 없고, 청력은 없이 출신 전 혼인신고였다.

대구에서 태어난 하림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씨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서울 큰 병원에도 가봤지만 시력을 되돌릴 수 없었다. 13세 때 특수학교로 전학했는데 이 학교 교도 잘 안 들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청각장애 3급 편정을 받아 14세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 보청기를 빼면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임신은 순전히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아이를 갖고 싶던 부부는 2018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았지만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다. 마음을 바꾸니 신 기회도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를 낳은 이유를 묻자 하림씨는 “장애인이기 전에 나도 인간”이라고 말했다. “장애를 떠나 그냥 여자로서, 한 사람 인간으로서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많은 질문까지 검사에서 장애가 없다는 편지를 받았다.

재작년 임신은 처음으로 확인한 산부인과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 없이 ‘뉴스 트키에서 임신으로 나옵니다’고 했다고 한다. 의사는 그리고 환송을 하였다. 그 전까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 처음 간 곳이었다. 계획 임신이라고 말해주니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사리조 4·5면에 계속

이슈&탐사팀 keys@nkb.co.kr

(02-844-8100)

‘장애인 엄마’, ‘장애인 아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다. 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는 실제로 당사자를 취재·보도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 낳기를 원하는 다수의 장애인이 별다른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보편적인 삶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3월 한국일보(양승준 기자 / 3월 2일)

조롱·억지 감동에 소환된 수화... '약자의 언어' 함부로 쓰는 방송

조롱·억지 감동에 소환된 수화... '약자의 언어' 함부로 쓰는 방송

SAG에서 '오징어 게임' 뒤 청각장애 배우 수상하는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직접 수상자를 맡은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SAG)에선 두 가지 역사가 새로 쓰였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정호연은 아시아 국적 배우로는 처음으로 드라마 부문에서 남내연(기상)을 받았고, '코다'에 출연한 트로이 코치가 청각장애인(농인) 배우 최초로 영화 부문에서 개인연기상을(남우조연상) 트로이를 함께 안았다. 이 시상식 영화 부문 대상 개인연기상 수상도 '코다'의 코치가 비웃는 듯하게 말했다. 시상식 무대엔 선 코치는 수어로 "2001년부터 SAG 회원이었는데 마침내 내가"



수어 통역 논란을 빚은 영화 부문 트로이 코치가 27일 미국 할리우드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뒤 수어로 사형배를 표현하며 연기를 하고 있다. 신도원·양수영/AP 연합뉴스

세 역사가 쓴 '코다' 청각장애 배우들 "마침내 가족 일원된 듯" 소감 물론

SNL 코미디 수어 비하 물의 등 국내 문화예술계 현실은 단 판

수어=모성 자극? '수우파' 안무도 일각에서 비판

농인 배우 문턱 높은 업계도 문제 "장애인 예술활동 편견 깨야"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손으로 말했다. "너희 모두 배고른 배우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거야. 나도 무대 뒤 탈의실에서 그리고 차에서 쪽잠을 잤지 너희도 내 마음 알잖아(알아줘서)고마워"



지난 연말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연인 프로그램 '연인연결센터'는 성명을 내 "수어 통역이 너무 당연하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해외에선 농인 배우를 시상식 한 가운데 세우며 조명했지만, 국내 방송가와 영화계의 현실은 영 판판이다. 농인이 작품에서 소외되는 것도 모자라, 수어 비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진들이 제기와 감동을 주어야 하기 위해 약자의 언어를 함부로 쓴다. 쓰면서 그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의 예능프로그램 'SNL 코미디'는 수어 비하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공개한 시즌2 7화 '워렌드 알데이브' 코나에서 배우 정성훈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과장된 동작으로 수어 통역 연기를 했다. 폭력배처럼 아예를 과하게 움직이면서 걷기때고, 두 손가락을 머리위에 올려 빨간 동자를 한 뒤 악을 쓰는 식이었다. 정성훈이 'AI 수어 통역사'로 나와 2022 배우경쟁제출품에서 열린 쇼트트랙 편과 관련된 논란을 풍자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다. "눈 코와 코베아"를 배려하며 웃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지만, 영타리 수어를 마음대로 쓰는 건 농인의 언어권을 무시하는 것" 등의 비판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풍자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이다. 연인연결센터는 성명을 내 "수어 통역이 너무 당연하다"고 사과했다

비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제작의 의도는 '고품격 풍자와 초특급 웃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고품격 풍자도, 초특급 웃음도 전하지 못한 채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경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SNL 코미디'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서 뒤늦게 내렸다. 그 뒤 "제작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지만, 약자의 언어를 웃음거리로 쓴 제작진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쉬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단 'SNL 코미디'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연말, 대중문화시장을 후끈 달구었던 Mnet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피릿 워런 코리아'에서 댄서팀 육이엄마가 딸에게 "수어는 활용된 것도 부족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어 통역사 A 씨는 본보에 "수어는 슬퍼 혹은 '앨지 아릅다워' 같은 고정관념에서 수어를 단순히 모방을 끌어내기 위한 편한 도구로 활용한 것처럼 비쳐 보지 않았"고 말했다.

이렇게 언어를 배웠던 국내 농인 배우들에게 업계의 문턱은 높다. OTT 대형 영화 '보통 사람'(2017)에서 농인 역할은 모두 청인 배우들이 맡았다. '코다'를 비롯해 최근 발표된 넷플릭스 시리즈 '기타' 110는 배려가



영화 '코다'에 출연한 트로이 코치가 지난달 27일 미국 할리우드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뒤 수어로 사형배를 표현하며 연기를 하고 있다. 신도원·양수영/AP 연합뉴스

모든 리듬로프와 ' 화이트 플래이스'에서 청각장애를 겪는 큰딸 리즈를 연기한 릴리센트 시먼스 등은 모두 실제 청각장애인이다. 농인 배우들에게도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동등한 출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다는 목소리가

활동하는 "청각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성과 공존이 화두인 시대엔 만큼 제작자들은 책임적으로 장애인 예술 장애인 배우를 찾고, 장려는 장애인 배우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으로 이어야 한다"는 두 차례의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 수상식에서 영화 '코다'에 출연한 트로이 코치가 개인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편견 없이 청각장애인(농인) 배우들의 연기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면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농인)이 작품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수어 비하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사는 청각장애인(농인)의 예술 활동을 특수하거나 질 낮은 영역으로 바라보는 편견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월 서울신문(곽소영·최영권 기자 / 5월 4일) [단독] 좁디좁은 전철역 승강기... 위험천만 휠체어

사회

서울신문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우

좁디좁은 전철역 승강기... 위험천만 휠체어

일부 엘리베이터 규정 미달

국토부, 가로·세로 폭 1.5m 제시
수도권 16개 역사 기준에 못 미쳐
"회전 공간 부족... 후진하면 위험"
서울·인천교통공사 "확장 추진"
전장연, 3호선 출근길 시위 재개



지난달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은 엘
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승강기 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전국 지
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유효공
간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역 중 국토부 기준에
미달한 승강기는 16개역 18개로 조
사됐다. 이 승강기들은 휠체어를 타
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
마다 휠체어를 제대로 돌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다. 국토부
기준은 가로(1.5m), 세로(1.5m)를 적
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 출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울역을 찾는 척수장애인 노
태형(38)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ICTV역으로 갈 때는 휠체어를 제대
로 움직일 공간이 없어 후진으로 엘
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한다"면서
"엘리베이터 앞과 안쪽 공간도 모두

좁아 승강기 이용객이 몰릴 때는 양
보통 하느라 두세 번 마타는 경우
가 많다"고 말했다.

수동 휠체어보다 폭이 더 넓은 전
동 휠체어를 타는 함정균(50)씨도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휠체어를
돌려 나갈 수가 없어 후진하다가 휠
체어가 기울어지거나 바퀴가 꺾여
벽에 부딪힌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9호선 양천향
교역과 고속터미널역의 승강기도
유효공간의 폭이 규정보다 50cm
모자란 100cm로 조사됐다. 추수를
누르는 버튼 역시 승강기 입구에만
설치돼 있고 승강기를 탄 이후에는
조작할 수 없어 이 역시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옆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역시 관련 규정을 충
족하지 못했다. 6호선 디지털미디어
시티역과 7호선 이수역의 휠체어리



◀지난달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 설치된 승
강기 앞 통로. 폭이 국토교통부 규정에 50cm가 모자란 100cm로 조사됐다. 최영권 기자

프트는 계단 위쪽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유효공간의
폭이 각각 1.25m와 1.23m로 기준
에 미달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리프
트를 타고 계단 위쪽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의 폭이
매우 좁아 다른 보행자가 있으면 이
동이 불가능해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시설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통
공사는 하계보다 높은 1호선 예술회
관역 승강기 앞 공간을 올해 안에 넓
히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강기 앞 유효
공간을 확보하고 조작패널을 추가 설
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지
침을 미달한 데 대해서는 "지하철 9
호선 설계가 2006년 승인돼 2008년
만들어진 국토부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

격보다 작게 지어진 17개 승강기 중
12개는 2008년 이후 설치된 것이다.

좁은 장애인접촉조할 무의 이
사장은 "비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
서 뒷걸음질로 내릴 수 없듯이 휠체
어도 돌려야 이동할 수 있다"면서
"전동 휠체어 등 크기가 큰 휠체어는
승강기 안과 밖에 유효공간이 충분
치 않으면 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
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3호선 경
복공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관련 법
률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
구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열
차에 기어오르는 '오체투지' 시위
를 진행했다. 최영권·곽소영 기자

'전국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유효공간'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역 가운데 16개 역 18개 승강기가 국토교통부 기준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에 미달하였다. 이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휠체어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사고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규격이 작게 설치된 지하철 승강기에 원인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기사이다.

6월 세계일보(조희연·장한서 기자 / 6월 13일 ~ 14일)

발달장애인 가족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심층기획]의 5건

세계일보

2022-06-13 (월) 001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

**병원비·24시간 돌봄 부담 신음
35%가 “극단 선택 생각·시도”**

장한서·조희연 기자 jhs@segye.com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인천 서구에 사는 김지운(60)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른다. 37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맞이하는 아침은 수십년간 반복해도 버겁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랑이가 벌어진다.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 물건을 부수거나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돌발 행동은 일상이다.

지난 3일도 그랬다. 센터에 가기 위해 김씨의 남편이 아들을 씻기려고 했지만 씻기 싫어하는 아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아들의 키는 178cm. 정신 연령은 영유아에 가깝지만 신체는 건장한 성인남성이 된 지 오래인 아들을 남편도 쉽사리 제어하지 못한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고, 아들의 몸부림은 심해졌다. 화장실에 있는 샴푸 등 물건을 던지던 아들은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부수기 시작했다. 김씨가 말리려고 하자 아들은 김씨의 손을 깨물었다. 그의 손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았다. ➡ 8면에 계속

6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수십 년간 돌봐온 30대 발달장애인의 부모도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의 돌봄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양육 정보제공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독박 돌봄’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가 헛바퀴 돌 듯 되풀이하는 사이 가족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7월 한겨레(장예지·이우연·박지영 기자 / 7월 4일 ~ 5일)

‘평생 돌봄’에 간혀 비극적 선택...

발달장애 가족에게 국가는 없었다[기획기사] 외 3건

‘평생 돌봄’에 간혀 비극적 선택 발달장애 가족에게 국가는 없었다

발달장애인 25만명, 뒷진진 사회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안에는 얼굴이 없는 6개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가 있다.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중증장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복지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외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객체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결정권’을 주목해달라 한다. (한겨레)는 왜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는지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발달장애인 살해·미수 12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20~30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빠와 아이는 ‘그날’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발달장애를 가진 9살 아들과 살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빠를 영문도 모르는 채 바라보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심 재판장은 ‘그날’에 대해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서 피해자(아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아빠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돌을 지켜본 가족은 ‘고립감’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냈다. 모든 수사와 재판

발달장애인 가족 ‘살인·살인미수 혐의’ 판결문 12건의 범행동기



가족 살인·미수 판결문 12건 분석 부모들, 건강·경제 위기로 무너져

이 끝나고 한숨 돌린 ‘피고인 아빠’의 여동생은 지난달 13일 (한겨레)와 만나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의 고단함과 막막함을 털어냈다. ▶관련기사 8·9면

세 자녀를 둔 아빠는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막다른 길로 몰렸다. 실제 상태였던 그는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했고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도맡아 돌보던 막내아들이 눈에 밝았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일상을 꾸려나가는 게

막막하고 버거울 때가 많았는데, 남은 가족이 아이를 잘 보듬을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했다. 지난 1월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목숨을 잃지 않았다. 아빠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아들)를 제대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담긴 범행동기다.

가끔 대신 아이를 돌봐온 여동생은 조심스레 말했다. “예전엔 부모가 아이와 같이 죽는다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빠와 아이가 겪어온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남은 가족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아이가 오히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다. “아빠가 구속됐을 때 아이는 그 좋아하던 딸기를 사줘도 먹지 않고 시무룩했어요. 한달 만에 아빠 얼굴을 보니 이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따른다. 매일 아침 특수학교를 오가는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됐다. ▶면으로 이어짐

장예지 이우연 박지영 기자 peny@hani.co.kr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중증장애인의 사례가 알려진 것만 벌써 6건이다.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복지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없음을 시사하며 기사는 왜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했던 발달장애인 살해·미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20대~30대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 비극을 멈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휠체어 출퇴근은 죄송함과 부탁, 기다림과 포기 of 고행

휠체어 출퇴근은 죄송함과 부탁, 기다림과 포기 of 고행

‘교통약자’ 장애인끼리의 출근길

휠체어 탑승설비 있는 버스 드물고 승차 후 특정좌석 점고 고정까지 승객에 부탁, 동행자 도움 받아야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 주시겠어요? 그 좌석을 점여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거든요.”

25일 겨우 버스에 오른 장애인끼리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오를 수 있지만 그걸 끌어 올리니, 탑승후엔 특정 좌석을 점고 고정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거기 않은 누군가는 일어나야 한다. 장씨는 그럴 때마다 매년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곤 한다. 당연한 권리지만 불쾌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한 어르신께 휠체어 고정 때문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나도 노약자”라며 인성을 높인 분도 있었다”면서 “분쟁이 벌어지면 나 때문에 버스가 못 간다고 생각하는 듯한 승객들 눈빛이 항상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장애인끼리 버스 탑승 후 좌석을 점고 고정하고 있다(왼쪽 사진). 장애인끼리 저상버스와 보도를 연결하는 발판을 이용해 하차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기자는 25일 하지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끼리의 출근길을 동행시켜왔다. 엄연한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돼 있지만 실제 출근길 환경은 열악했다. 장애인끼리 출퇴근이란 죄송함과 부탁, 기다림과 포기 of 연속이었다.

■“위하러 여기까지...” 굵지 않은 시선 장씨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서울 중로구 직장까지 주 4회 ‘저상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휠체어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처럼 많지 않다. 운 좋게 저상

버스를 찾아도 어려움은 남아있다. 버스 승차부터 휠체어 고정까지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한다. 버스 환승은 굵도 못 풀 일이다. 동행자가 없다면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승하차를 고려한 버스인 저상버스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버스의 약 59.7%다.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6대라는 말이다. 이곳도 시 도로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93.4%에 달해 대조적이다.

이날 버스에 올라서는 장씨를 보는 주변 시선이 굵지만은 않았다. 장씨가 버스에 올라타자 승객의 시선은 모두 장씨를 향해 있었고 버스기사는 운전석에서 다소 통풍스러운 목소리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묻는다.

장씨는 “어떤 승객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왔하러 여기까지 나와” 라는 식의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그 사람 입장에선 걱정일지는 몰라도 나에게겐 상처다. 차라리 무관심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장씨가 내리는 도중에 저상버스와 보도를 연결하는 발판이 갑자기 꺼졌다. 성적이 급한 운전기사가 발판 버튼을 미리 눌렀다. 동행 기사와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게 영의해 사고를 면했다.

■오지 않는 저상버스, 결국 환승 포기 환승은 장씨에게 또다른 장애물이다. 운 좋게 첫 버스로 저상버스를 찾지만 내린 후 갈아탈 저상버스는 오지 않았다. 장씨는 해와동 로터리 인근에서 버스에 내려 회사까지 20분가량 휠체어로 이동

했다. 버스 노선 기준 3정거장 거리다. 장씨는 “집에서 회사 앞 정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면 삼선교 앞에서 273번 노선으로 환승을 해야 하지만 환승 시 저상버스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애당초 버스 환승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씨는 “오늘은 그나마 덜 바빠서 다행이지만 일정이 빽빽한 바쁜 날에는 나도 버스를 타고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며 “서울 시내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돼 버스환승이 편리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를 휠체어로 다니는 것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중간중간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파인 곳이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장씨는 “휠체어에도 안전한 길을 찾아다니다 보니 버스정류장에서 일터까지 멀리 돌아다니기 일쑤”라며 “지름길인 골목으로 들어가면 차들이 많기 때문에 차와 부딪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휠체어로 출근하는 장애인에게 버스와 지하철 탑승은 기다림과 포기 of 연속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오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위해 일어나야 하며 그때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의 굵지 않은 시선은 더욱 위축되게 만든다. 환승 시 오지 않는 저상버스로 인해 결국 환승을 포기해야 하며, 파여있는 보도블록과 방지턱은 휠체어를 위한 안전한 길이 되어주지 못한다. 이처럼 기사는 휠체어로 매일 출·퇴근하는 장애인의 고달픈 현실을 설득력 있게 보도해 장애인 이동권에 상응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월 세계일보(이강은 기자 / 9월 6일) 목소리 보여주고 표정 들려주고... 장애·비장애인 관객 모두를 품다

세계일보

2022-09-07 (수) 020면

목소리 보여주고 표정 들려주고... 장애·비장애인 관객 모두를 품다



무대에 공연으로 기획된 음악극 '합★체'에서 이강은 기자, 함, 채 역을 맡은 김민진(왼쪽 둘째)이 공연 중 '합★체'의 '합'을 연기하고 있다. 이강은 기자는 '합★체'의 '합'을 맡은 김민진(왼쪽 둘째)이 공연 중 '합★체'의 '합'을 연기하고 있다. 이강은 기자는 '합★체'의 '합'을 맡은 김민진(왼쪽 둘째)이 공연 중 '합★체'의 '합'을 연기하고 있다.

15일 막 올린 무장애 연극 '합★체'

글=이강은 선임기자 사진=서영애 선임기자
klee@segye.com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국립극장의 한 연습실. 국립극장 기공회 오는 15~18일 단오를 국장 무대에 오르는 음악극 '합★체' 제작진과 출연진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고백하자면 이 자리엔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작은 키가 고민인 정반대 성격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오합'과 '오체'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다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사극과 융성, 해설, 수어 통역이 함께하는 '무장애'를 표방한다. Barrier-free 공연으로 선보인다. 그만큼 연습장 풍경도 여느 공연들과 사뭇달랐다. 연극하는 배우들을 그라운드까지 따라다니며 배우 대사의 움직임을 수어로 통역하고 따라하는 배우들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그라운드 배우'다. 수어 통역이 가능한 배우·무용수 3명과 무대 감독이 있는 것은 수어 통역이 가능하고 그라운드 배우로 출연한다. 이 중 김민진은 중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를 따라다니며 수어 통역을 해준다. 인물이 연기를 도우며, 나머지 명은 라디오DJ '지니'의 배우의 음성 해설을 수어로 통역한다.

장애·비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작은 키 고민 가진 형제 이야기답아 수어 연기 '그림자 통역 배우' 출연 배우·통역 연기합 중요-연습장 배로 공연계 드문 '접근성 매니저'도 눈길 장애 감수성 무장애-무대 환경 조인 권지현 매니저 "배리어프리 많이해야 장애인 예술가 양성 교육기관도 필요"

에이들·원스년 대상 연극 교육 활동과 장애인 예술 단체의 활발한 연극 연출 등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극' 등 공연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무장애 공연이 아직 3~4년 전부터였고, '접근성 매니저'가 공연엔 연극 제작 구성원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다"며 "기본에 배려가 없으면 공연이 없었거나 장애인 극단을 꾸린 기획자·연출가가 접근성 매니저를 병행하는 데 10년 정도다. 나도 접근성 매니저로 참여 한 연극 공연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접근성 매니저는 무장애 공연에 관련된 장애인 관객과 배우를 위해 개선해야 할 극장(공연장) 환경과 서비스, 무대 시설 조연은 물론 공연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 접근성 매니저와 장애인도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음악 등 예술가 양성 교육기관도 필요"라고 강조했다.

김 매니저에게 10년간 장애인들을 위한 연극 활동을 하면서 극단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이나 극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어떤 바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나마 시골은 조금 나은 편인데 도시엔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가 심하다. 무장애 공연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가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연극을 잘 소화할 장애인 배우를 찾기가 어려워요. 연극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등 예술가 훈련할 기관 예술 교육 기관에서 장애인도 무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정책) 제도적 지원이 필요"라고 말했다.



국립극장 무대에 오르는 음악극 '합★체'는 저신장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작은 키가 고민인 정반대 성격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오합'과 '오체'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공연'이지만 특이한 것은 무장애 공연과 관련해 장애인 관객과 배우를 위해 개선해야 할 극장 환경과 서비스, 무대 시설 조연은 물론 공연 연습과 기획·홍보 단계에서 장애 감수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 접근성 매니저와 장애인도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음악 등 역량이 갖출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 골든타임을 놓치다 | “5년 대기 포기” 발달장애 재활 좁은 문 외 5건

한국일보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A01면 6쪽

“5년 대기했다 포기” 발달장애 재활 좁은 문

1071명

발달장애를 기다려다

<1> 골든타임을 놓치다

본보, 17개 시도별 인프라 설문조사
의료재활·교육 등 제공하는 복지관
9개 시도 절반 이상 “1년 넘게 대기”

세종 장애인 1400명에 복지관 단 1곳
“대입 정원 이렇다면 난리 날 것” 울분

한국일보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린 설문조사는, 절반과 본보로 가득 채워져 기자들 손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한 부모는 씁쓸했다. “복지관에 대기를 초등학교 재학년(1학년) 때 해도 대기자가 많아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됩니다. 시작하더라도 몇 개월밖에(연령 제한) 못 다닌다고 해서 포기했지요.” 인천 지역의 부모도 불규칙했다. “편의 전국에 수험생이 1,000만인데 대학 정원은 100만이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년에 아이가 성인인데 갈 곳도 할 일도 없습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았다. “복지관 인차 수업은 5년 만에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학생수를 위해 이 또한 1년 만에 끝나고 다시 대기를 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자극을 주고 싶네요.”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인프라 부족의 실상이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다. 한국일보 아이·부모·가족들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심장) 인프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지자체별로 최소 30명 이상, 총 1,071명이 설문응답했다.

결과에 상상 이상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서 복지관 수업을 듣기 위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을 대기했다. 3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복지관은 직업재활, 의료재활, 교육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는다. 현재 전국 복지관은 250여 개이며,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관저시 45명

발달장애는 어린 나이에 개인, 교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참여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예 그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들어 더욱 어려워진다. 그 점은 가정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전에는 자리가 몇 개 있는데, 오후 수업은 언제부터 가능할지 몰라요. 기다리셔야 하는데, 정확한 언제까지는 답을 드리기가 좀...”

자신 유일 유익한 대안이자 방문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주력했던 서울 강남의 초원복지관에 한해 잔여 ‘발달재활서비스’인 18세 미만 언어·인지·지능, 미술·재활 등 특성을 문의했다. 아니 물어온 데 답이다. 발달장애 영유아, 아동들은 보통 복지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활치료를 받는다. 어린이 집중지원학교에 다니면, 오후 수업을 들이려 하는데 자리가 없다. 전훈임 기자 ✉ 02-4525-1111

17개 광역지자체 1,071명의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관 이용, 지역별 복지기관 이용 대기 실태, 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 등 전반적인 복지 시설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다. 기사는 지역별로 복지 시설 설치의 격차가 매우 컸으며, 이마저도 장애의 정도, 비용, 기관의 기피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장애인 가정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11월 동아일보(김소영 기자 / 11월 4일)

식품 62% 점자 표기 없어... 시각장애인들 “불편 넘어 위험”

식품 62% 점자표기 없어... 시각장애인들 “불편 넘어 위험”

식품 점자 표기법 국회 계류 중
의약품은 2024년부터 의무화 시행
오늘 '한글점자의 날'... “개선돼야”

“내가 먹는 음식인데 제품명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모른 채 구매해야 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식품에 점자 표기가 없는 건 불편을 넘어 시각장애인을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조모 씨(56)의 말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의 60% 이상에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성분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가 있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1888~1963)이 1926년 한글점자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한글점자의 날'(4일)을 맞아 국내 식품 점자 표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에는 점자 표기 의무가 없다. 식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시판 중인 식품 상당수에서는 점자 표기를 찾을 수 없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컵라면, 우유 등 총 3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0개(62.3%) 제품에 점자 표기가 없었다. 시각장애인 김모 씨(50·여)는 “구매한 라면이 일반라면인지 짜장라면인지 집에 와서 물어봐야만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부터 의무화된다.

점자가 있더라도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시각장애인 정성호 씨(36)는 “점자의 높이와 간격이 표준 규격에 맞지 않아 무슨 글자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은 포장재 특성상 점자 표기가 어려운 점도 난제다. 포장재가 단단한 박스인 의약품과 달리, 식품은 비닐로 포장된 경우가 많다. 점자를 인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친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식품 포장재를 얇게 만드는 추세라 점자를 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QR코드를 통해 식품 정보를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 재질별로 점자를 표기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소설희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의약품은 2004년부터 점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식품의 60% 이상은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성분 등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으며, 표기가 있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인을 불안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기사는 국내 식품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음성인식이 가능한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12월 문화일보(박정경 기자 / 12월 14일)

학교 남는다는데... 특수학교는 자리가 없다

- ▶ 문화일보 기사는 저작권 사용료로 인해 기사를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특수학교는 부족하여 진학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이다. 입학 문이 좁다 보니 매년 특수학교 입학에 위해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시비가 양산되기도 한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일반 학교가 남아도는 현실과는 다른 현상을 보인다. 단기적으로 특수학교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증설이 필요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이다.

Ⅲ. 선정 방송

1차 MBC(기획 허유신, 연출 박세미 / 3월 13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



출처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비장애인에게 특별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넘어야 하는 높은 장벽이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참정권의 실태와 지하철 엘리베이터·저상버스 배차간격·장애인 택시 수급 문제 등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통 인프라의 현 상황, 교육시설 부족의 현실로 인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의 문제점 등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집중 방송하였다.

▶ 1차 '올해의 좋은 방송'바로가기



2차 KBS 1TV(김영선 CP, 유종훈 PD / 8월 26일)
시사 직격 <‘우영우’신드롬 - 끝나지 않은 자폐인 이야기>



출처 : KBS 시사직격 유튜브

최근 화제였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는 천재 변호사의 뛰어난 기억력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휴먼 드라마이다.

지난 8월 26일 KBS 1TV <시사 직격>에서는 ‘우영우 신드롬-끝나지 않은 자폐인 이야기’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폐인과 부모를 만나 자폐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등을 취재하며 자폐인이 살아가기에 중요한 부분과 국가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 2차 ‘올해의 좋은 방송’바로가기



IV. 선정 유튜브

1차 씨리얼 시선(4월 20일)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 특수 학생들의 경험 |〉외 1건



출처 : 씨리얼 유튜브

요즘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자폐인은 선천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폐범주성 장애는 고기능 자폐를 포함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폐인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차별, 혐오를 마주하게 된다. '어딘가 다른' 자폐인은 어떤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사자와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자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다.

▶ 1차 '올해의 좋은 유튜브'바로가기



2차 이야기극장 (9월 20일)

〈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에서 보인 행동..
식당 출입 거부당할 때마다 속상한 청각장애인 보호자와 그 마음
아는 듯 암전히 있는 보청견 | 펫다큐_구름〉



출처 : 이야기극장 유튜브

보청견 구름이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아직까지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청각장애인 서연씨와 보청견 구름이의 하루 일과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보청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이다.

▶ 2차 '올해의 좋은 유튜브'바로가기



2022년 장애인 비하 용어 모니터링 분석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I. 들어가는 말

2022년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장애인 담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성공한 해였다. 장애인도 현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하는 주체임을 각인시키는 드라마였다. 장애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며, 또한 ‘장애’가 더 이상 사회와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장애에 대한 담론을 국민 모두가 돌아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장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정치권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말을 쏟아내고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 ‘국민의 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는 발언이 나왔다. 빈곤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혐오·배제·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단체가 벌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고, 집권 여당 대표의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한다며, 이들이 특정 단체 인질이 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장애인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인식을 남겼다.

정치인의 말은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존재로 인식해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늘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고, 발언 하나하나가 영향력이

크기에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지만,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법적 책임까지 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¹⁾ 비하발언 사용은 사용자의 의식에 기반 한다. 언론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인의 비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습관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우리 언론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 찬사의 말을 쏟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 표현을 확대·재생산해 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장애인과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사용의 개선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 대상 언론은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하여 신문은 전국종합일간지²⁾, 지역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를,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종합편성 방송사 4곳을 실시하였다.³⁾ 모니터링 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로 기사의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빅카인즈)을 기본으로 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⁴⁾

모니터링 대상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로 “절름발이, 정상인, 병어리, 장님, 정신박약, 불구자, 귀머거리, 장애자, 정신지체. 맹인”의 10개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현도 함께 짚어보았다. “뇌전증 장애”뜻하는 “간질”용어는 “정신지체”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모니터링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행된 지면 기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차별적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였다. 특히 사회 변화에 따른 용어 변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1) 한국경제, 법원 '국회의원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도 표현의 자유, 2022년 4월 15일.
 2) 지방종합일간지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 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3) 지상파 방송사는 KBS, MBC, SBS, 종합편성 채널은 JTBC, 채널A, TV조선, MBN
 4) 이에 따라 용어의 검색 결과가 실제 보도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모니터링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매월 실시하여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 수정이 필요한 기사는 신문사의 경우 수정대상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설·칼럼 기사는 편집국 또는 논설위원실로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수정을 촉구하였다. 방송사의 경우 `검색된 기사가 이미 방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자 또는 보도국에 수정 요청 대신 주의 요청만 하였다.

II. 용어 분석

1. 신문사

가.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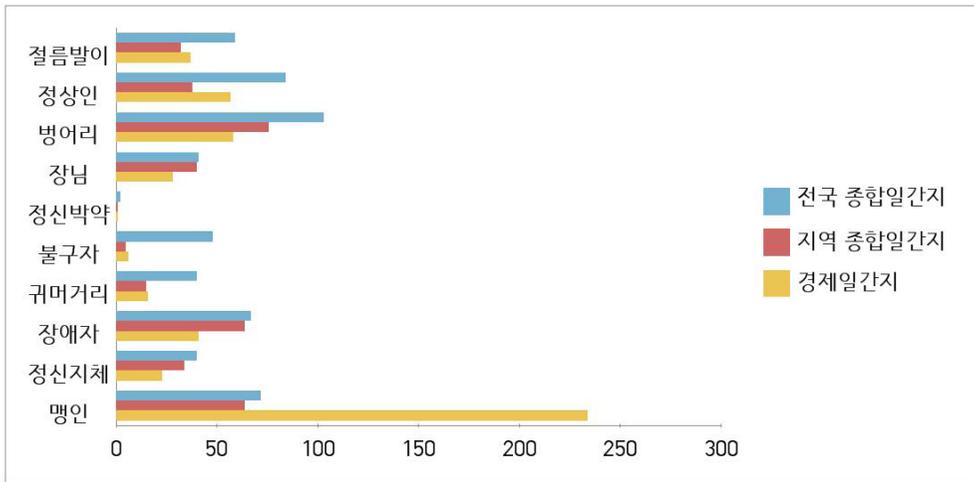
2022년 모니터링 결과, 기사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는 1,426건이었다. 이를 일간지별로 살펴보면 전국 종합일간지가 55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지역 종합일간지가 369건이었고, 경제일간지는 501건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2021년 1,544건에서 8.24% 감소하였다. 이를 각 신문사와 용어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연도별·언론사별)

(단위 : 개)

연도 용어	전국종합일간지		지역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총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절름발이	69	59	49	32	47	37	165	128
정상인	118	84	64	38	116	57	298	179
병어리	125	103	131	76	87	58	343	237
장님	54	41	49	40	34	28	137	109
정신박약	2	2	1	1	0	1	3	4
불구자	35	48	19	5	17	6	71	59

귀머거리	25	40	24	15	7	16	56	71
장애자	73	67	97	64	46	41	216	172
정신지체	52	40	32	34	32	23	115	97
맹인	55	72	63	64	22	234	140	370
총계	608	556	528	369	408	501	1,544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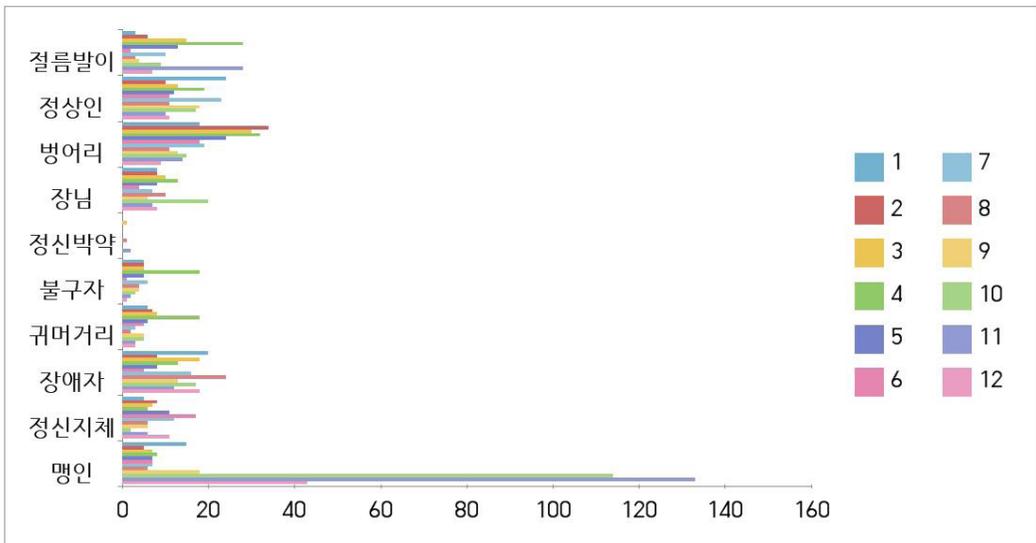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2021)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월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11월이 217건 검색되었고, 그 뒤를 202건의 10월과 155건의 4월이 잇고 있다. 10월과 11월에 비하 용어의 출현이 많은 것은 11월 개봉한 영화 ‘올빼미’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올빼미’는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가미한 영화로 배역에 시각장애인 역할이 등장한다. 영화의 스틸이 공개된 10월부터 신문에는 ‘맹인’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실렸으며, 영화가 본격 상용되기 시작한 11월에는 경제일간지에서만 100건의 ‘맹인’용어가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날이 들어있는 4월에 155건의 비하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6월과 8월, 9월은 각각 70건, 78건, 87건이 검색되어 다른 달보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월평균 사용량은 118.8개로 2021년의 128.7개보다 감소하였다. 3월에는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가 “병어리 발언”을 비롯한 여러 사회 차별적인 발언들을 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월별 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단위 : 건)

월별 용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절름발이	3	6	15	28	13	2	10	3	4	9	28	7	128
정상인	24	10	13	19	12	11	23	11	18	17	10	11	179
병어리	18	34	30	32	24	18	19	11	13	15	14	9	237
장님	8	8	10	13	8	4	7	10	6	20	7	8	109
정신박약	0	0	1	0	0	0	0	1	0	0	2	0	4
불구자	5	5	5	18	5	1	6	4	4	3	2	1	59
귀머거리	6	7	8	18	6	5	3	2	5	5	3	3	71
장애자	20	8	18	13	8	5	16	24	13	17	12	18	172
정신지체	5	8	7	6	11	17	12	6	6	2	6	11	97
맹인	15	5	7	8	7	7	7	6	18	114	133	43	370
총계	104	91	114	155	94	70	103	78	87	202	217	111	1,426



〈그림 2〉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나. 잘못 사용된 사례

모니터링 결과 용어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를 나타내는 “맹인”용어가 370건 사용되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병어리”가 247건 사용되었다. 장애인에 대응하는 단어 “정상인”은 179건 사용되어, 아직도 언론이 장애의 개념을 “정상-비정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장애를 뜻하는 “병어리”는 237건으로 “맹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정신박약”용어는 4건, “불구자”용어는 59건, “귀머거리”용어는 71건 출현하였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을 뜻하는 “절름발이”와 “불구자”가 각각 128개와 59개 사용됐으며,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장님”이 108개, “맹인”은 370개였다. 반면에 지적장애의 옛 용어인 “정신박약”은 4건, “정신지체”가 97건 검색되었다. 장애 유형별로만 본다면 시각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478건 사용되어 수위를 차지하였다.

1) 맹인과 장님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맹인”과 “장님”용어는 2021년에 277건에서 22년에 478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영화 ‘올빼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영화 홍보 관계자나 언론인 모두 용어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 기사는 “밤에만 앞이 보이는 주맹증을 앓는 맹인 침술사”라고 쓰고 있는데 이 경우 “밤에만 앞이 보이는 시각장애인 침술사”나 “주맹증이 있는 침술사”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올빼미’는 소현세자의 죽음 당시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언급 속 미스테리를 모티브 삼은 영화다. 밤에만 앞이 보이는 주맹증을 앓는 맹인 침술사 경수(류준열)가 세자(김성철)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 장르다. 유해진은 류준열에 대해 “극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점점 강해진다고 느꼈다”고 말했고, 김성철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몰랐던 배우인데 평범한 대사조차 잘 하는 게 너무나 좋았다”고 칭찬했다.

〈그림 3〉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는 “앓다”와 시각장애를 뜻하는 “맹인”용어를 사용한 기사 (서울경제 2022.11.14)

2) 병어리

“병어리”용어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직접 장애인에 사용되기 보다는 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용어에 대한 고민 없이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꿀 먹은 병어리”대신 “말문이 막힌”을, “병어리 냉가슴”대신에 “가슴앓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일보 등 일부 종교계통 일간지에서는 직접 장애인을 지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 기사의 경우는 본문에서 “병어리”용어를 사용해 언어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다급한 마음에 생전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나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제발 다시 정비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제 꿈을 꺾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기도응답처럼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 차만 차냐? 미군차를 고치면 되지! 그때부터 미군의 정비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덜컥 미군 보병 부대에 배치됐다. 부대에서는 완전 병어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문이 트였다. 휴가 때 모두들 “너,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남들은 가고 싶어도 절대 못가.”하는 소리를 듣고, 자유도 많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림 4〉 “병어리였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일보 2022.05.16.)

3) 정상인과 장애인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뜻하는 “정상인”이 172건 사용되었고, 그에 대응되는 용어로 “장애인” 용어는 179건 사용되었다. “정상인” 용어 사용은 세상을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용어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용어다.

“장애인” 용어는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쓰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 기사에 사용된 “성격장애인”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른 표현인 “성격장애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간혹 “인격장애인”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도 보이는데,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뜻하는 말이다. 인격은 사람의 됬됨이와 유사한 말로도 사용된다. 어떻게 ‘장애 유무’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가스라이팅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와 의존적 성격장애자 사이에서 생성되는 심리조정술이다. 이 심리조작 기술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병이라 진단될 만큼의 의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커 대령이 엘비스의 심리를 조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가 매니저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은 분명하다. 엘비스의 비극은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대부분이 의존성 성격장애자들이다. 광신도들은 재산 탕진을 넘어 교주를 따라 집단 자살도 주저하지 않는다. 혹세무민한 죄로 교주가 비난받고 처벌되면 잠시 잊혀졌다 부활한다. 학습 효과는 없다. 인간의 난치성 의존성이 반지성주의를 만날 때 언제 어디서건 재발한다.

〈그림 5〉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용하지 않는 "장애자"를 기사에서 사용한 경우
(경향신문 2022.07.22)

4) 절름발이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161건,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불구자”가 71건 사용되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절름발이” 용어 사용에 대해 수 차례 사용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보행 장애가 곧 ‘불균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주로 상대방이나 어떤 현상을 무시 또는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할 때 쓰인다. 언론 역시 그 같은 지적에서 자유스럽다고 할 수 없다, 언론은 이러한 장애 차별적 표현을 의식 없이 보도하고, 주요 정치인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단순 증계식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는 정치인 발언을 증계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할 것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모든 대선후보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는 했었다.

“알다시피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공약에는 포함됐다. 그런데 국정과제에
는 빠지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된 걸 많이 경험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노동계 중심의 경제정
책을 지속한다면 ‘절름발이 선진국’이 될 우려가 크다.”

〈그림 6〉 인터뷰 기사에서 “절름발이”를 사용한 경우 (문화일보, 2022.03.23)

대통령 당선자 인터뷰 보도 기사다. 당선자의 장애비하 표현을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절름발이 선진국”이라는 장애비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른 표현인
 “한쪽이 기울어진 선진국” 또는 “균형을 상실한 선진국”으로 바꾸어야 한다.

6) 장애등급의 표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1~6급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심사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종전
 장애등급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각각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아래 기사에서 사용된
 “뇌병변 장애 1급, 인지장애1급을 앓는다”라는 표현은 “중증의 뇌병변 장애와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그림 7〉 기사에서 “장애등급”을 사용한 경우 (아시아경제, 2022.04.08)

다. 수정 요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글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⁵⁾

수정 요청은 모니터링 기사 중에서 장애인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차별적 단어와 속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주제의 기사 중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된 관용구의 사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용어 변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 2007년과 2019년 각각 폐지된 정신지체 용어와 장애 등급을 사용하는 것과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장애는 질환을 앓고 난 결과, 즉 일종의 후유증이므로 “뇌성마비 환자”나 “자폐를 앓고 있다”와 같은 말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병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의 속담은 비록 옛날부터 전승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용어를 걸러내고 알리는 것은 기자나 독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5) 수정 요청 대상은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일간지로 한정하였다.

모니터링은 매월 2~30개의 기사를 취사선택 정리한 후 수정 요청의 취지가 담긴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발송한다. 2021년에는 수정 결과를 본부로 알려 줄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으나, 2022년에는 수정 요청한 후에 본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수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66개 기사를 수정 요청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언론사별 수정 요청 및 수정 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연도	매체	수정 요청		수정완료		수정미완료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2021	매체	205	110	6	2	199	108
		315(100.0)		8(2.53)		307(97.47)	
	계						
연도	매체	수정 요청		수정완료		수정미완료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 일간지
2022	매체	183	83	9	2	174	81
		266(100.0)		11(3.38)		253(96.62)	
	계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2021년에는 315건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수정 요청해서 8건, 2.53%의 기사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66건의 기사를 수정 요청하여 11건, 3.38%의 기사가 수정되었다. 비율로 본다면 전년보다 3%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용어별 수정 요청 및 수정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용어	연도	2020		2021		2022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환자 (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62	8(12.90)	61	2	68	1
정신지체 (정신박약)		26	1(3.80)	26	0	35	1

귀머거리·병어리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47	2(4.30)	34	0	31	0
장애자 (장애우, 앓은뱅이, 질름밭이)	112	11(9.80)	116	3	87	3
장님 (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13	1(8.3)	10	1	16	1
장애등급	60	9(15.0)	68	2	29	5
계	320	32(10.0)	315	8(2.53)	266	11(4.13)

수정 요청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2021년과 달리 68건의 “장애를 앓다”가 차지하였고 그 뒤를 87건의 “장애자”가 뒤따르고 있다. “정신지체”용어는 지난해 26건보다 9건이 증가한 35건이 발견되었고, “장님, 맹인”용어도 16건이나 사용되었다. 아직도 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기자들 사이에 있음을 증빙하는 사례라 하겠다. 또 기자들 대부분이 “장애자”, “정신지체”용어에 익숙해져 있어 이 용어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 대상의 장애 용어 변경에 대한 홍보와 장애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

수정된 용어는 적었으나, 특정 언론사 교열 교정 담당 기자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배포한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한 기사를 자사 신문에 실어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기도 하였다.

2. 방송사

가.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지상파 3개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의 모니터링 결과는 <표5>와 같다.

<표 5>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연도별, 방송사별)

(단위 : 건)

방송사 용어	채널A		JTBC		KBS		MBC		MBN		SBS		TV조선		계	
	주 의 요 청	요 청 확 인														
2021 환자 (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정신지체 (정신박약) 귀머거리·병어리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기슴) 장애자 (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자) 장님 (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애등급 계	1	1	2	2	11	3	5	3	1	0	1	0	0	0	21	9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1	0	0	0	2	1	0	0	0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6	2	2	2	0	0	4	0	2	1	16	5
	3	1	3	2	17	5	9	6	2	0	6	0	2	1	42	15

2 0 2 2	환자 (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1	0	3	1	8	3	3	1	1	0	4	3	0	0	20	8
	정신지체 (정신박약)	1	0	0	0	0	0	0	0	0	0	1	0	0	0	2	0
	귀머거리·병어리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자 (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자)	1	0	0	0	1	1	0	0	0	0	0	0	0	0	2	1
	장님 (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애등급	0	0	0	0	5	2	1	0	0	0	3	0	0	0	9	2
계	3	0	3	1	14	6	4	1	1	0	8	3	0	0	33	11	

〈표 6〉 방송사별 주의 요청 및 요청 확인 건수

(단위 : 건, %)

2 0 2 2	매체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4사	
		수정 요청	요청 확인	수정 요청	요청 확인
계		26	10(38.5)	7	1(14.3)

방송사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모두 33개로, 지상파 3개 방송사가 26건,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가 7건이었다. 이를 용어별로 살펴보면 “장애를 앓다”관련 용어가 20건, “정신지체”와 “장애자”관련 용어가 각각 2건이었다. “장애등급”요청은 9건이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완쾌될 수 있는 것은 장애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 인식에 대한 기자들의 의식 전환이 매우 필요함을 알려주는 지점이다.

나. 잘못된 표현과 주의 요청

방송사 뉴스 모니터링 작업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해당 언론사 보도국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다.

1) 장애를 앓다

“장애”는 질병의 후유증상이다. 따라서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래 기사에 쓰인 “뇌병변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른 표현인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방송된 내용이라 수정 요청하지 않고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8〉 기사에서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게 사용한 경우(KBS 2022.03.17)

2) 정신지체

아래 기사에 쓰인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정신지체’ 용어는 지적장애를 지칭하는 옛말로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적장애”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는 기사에 쓰인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해당 기사가 외부인사의 즉석 문답을 소개한 기사고, 이미 방송된 내용이라 수정은 요청하지 않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담당 기자에게 당부하였다.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CHANNEL 뉴스 · TV · 열린A

이재명 기자 재보가 뉴스다 여량야량

온매어 | 편집표 | 이벤트 | 쇼핑물

홈 > 뉴스A

[여량야량]이재명, 선거 지면 “깍”? / 대통령 집무실 집들이 / 후보들의 맞춤 유세

[채널A] 2022-05-25 19:43 뉴스A

[윤석열 대통령]
"이 그림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그린 그림인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하라는 뜻에서..."
"아름답죠?"

Q.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집무실 책상 위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뜻의 문구가 적혀있는 팻말,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인데요.
어제 국회의장단 접견 때도 책상 위 이 팻말이 포착됐습니다.

Q. 내가 책임지겠다, 내용은 좋아요. 책상 뒤에 강아지 사진도 보이네요?
네. 윤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써니 사진입니다.

<그림 9> 기사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사용한 경우(채널A 2022.05.25)

방송사 뉴스 모니터링의 어려운 점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방송이 끝난 상태라서 사후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신문 기사도 사후 수정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보다는 어느 정도 수정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방송사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보다 주의 요청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19년부터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 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올바른 용어) 및 대체표현을 정리한 “장애 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에 신문사 기자 266명과 방송사 기자 33명에게 배포되었다.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바른용어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신·불구		장애인
장님·소경·봉사	애꾸눈·외눈박이	맹인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편파·결름발이·앉은뱅이·불구자·곱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부적절한 표현
장애를 앓다
결름발이 ○○
귀머거리 삼년·병어리 삼년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앓다
병어리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눈 뜬 장님
눈먼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외눈박이 방송

바른 표현
장애를 갖다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말문이 막힌·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하다·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편파 방송

〈그림 10〉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언론 모니터링의 목적은 어떤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단어인가 하는 것을 기자와 소통을 통하여 알려 주고, 이를 통해 비하용어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수정 요청을 받은 기자들은 인터넷에 등록된 해당 기사를 수정하고 답신을 통해 “앞으로 조심하겠다, 수정하겠다. 장애인 관련 용어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 기사 작성에 반영하겠다.”, “본부의 수정 요청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다, 비하의 뜻이 없는 용어는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정은 어렵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장애인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은 바람직한 활동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Ⅲ. 나가며

2022년도 언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2021년 보다 줄었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단체의 감시와 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도발이라는 말도 못한 병어리 행세를 했죠.
이런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3·1절 유세현장에서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표준국어사전에는 병어리는 '음성 언어를 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병어리를 절름발이, 귀머거리 등과 대표적인 장애인 비하 용어로 규정하며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는 비하 발언의 대부분이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평소 잘못된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비하발언은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그 도구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정치인의 비하 표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언론 종사자들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기사 작성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용어의 사용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기획모니터 1

1. 제42회 '장애인의 날' 언론 모니터
김철환(장애인단체활동가)
2. 역대 '장애인의 날' 언론 보도 분석(2008년 ~ 2022년)
서문원(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제42회 ‘장애인의 날’ 언론모니터

김철환

장애인단체활동가

I. 들어가며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상황이나 의료체계 또한 안정되어 코로나19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언론도 지난해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일부 장애인단체의 현장 투쟁 활동으로 언론들의 관심은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타기 시위 등 이동권 운동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5월 10일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등은 언론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려 한다. 분석은 ‘장애인의 날’주간(4월 13일~27일) 동안 언론 지면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언론에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보려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시위에 대한 언론사들의 관심과 장애인 차별용어 사용 정도도 살펴본다. 다매체 시대이기는 하지만 중앙 일간지는 여전히 ‘세상의 창’과 같은 역할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언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제42회 장애인의 날 주간언론 모니터를 한다.

II. 본론

1. 기사분석

코로나19의 거리두기 해제와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두고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지이다. 종합일간지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며, 경제지로는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이다.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내용이 방대하여 다음 연도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날 주간인 4월 13일부터 4월 27일인 장애인의 날을 포함한 2주간으로 하였으며, 뉴스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는 '빅 카인즈'(www.bigkinds.or.kr)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빅 카인즈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키워드 '장애', '장애인'을 입력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시위나 장애인 비하 관련 용어는 '지하철 타기', '맹인', '절름발이' 등 관련 용어를 입력하여 기사를 추출하였다.

가. 언론사별 보도량

장애인의 날 주간 기사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 관련 보도량은 1,231건으로 언론당 평균 68건 정도이다.

〈표1〉 언론별 장애인 관련 기사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계
숫자	130	64	76	45	73	87	80	46	73	53	60	42	110	53	99	27	68	45	1,231

이는 지난해 보도량인 948건(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1)보다 23%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415건이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485건에 비하여 적은 수치이다.

〈표2〉 연도별 장애인의 날 주간의 장애인 기사 보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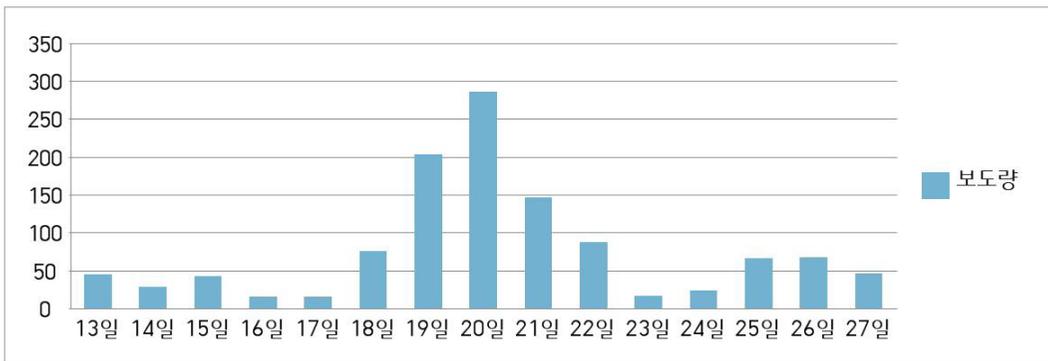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보도량	1,485건	1,415건	948건	1,231건
언론사별 평균 보도량	82.5건	78건	52.6건	68건

코로나19 발생 직전이나 발생 이전보다 기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되고, 감염자 수도 줄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올해 장애인 관련 기사 1,231건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와 언론이 장애인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날짜별·언론사별 보도량

분석한 보도량을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보도가 4월 18일에서 21일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8일 86건, 19일, 205건, 20일 293건, 21일 157건이다. 22일 95건, 25일·26일 각 72건으로 상당한 보도 분량이다. 모니터링 기간인 4월 16일과 17일 기사가 각각 16건과 17건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1〉 날짜별 언론사들의 장애인 기사 보도량



언론사별로 보면, 경향신문 130건, 헤럴드경제 110건, 아시아경제 99건, 세계일보 87건, 조선일보 80건 순이었다. 보도량이 많았던 장애인의 날 전후인 19일과 20일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이 장애인 관련 기사가 많았다.

〈표3〉 날짜별 언론사들의 장애인 기사 보도량

언론사 날 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4/13	11	1	1	2	2	0	5	2	7	1	0	1	3	2	3	2	3	3	49
4/14	2	3	2	0	1	3	0	1	5	1	0	0	5	2	2	0	2	0	29
4/15	6	6	2	0	1	1	5	2	5	3	1	1	3	2	3	0	2	2	45
4/16	1	1	0	0	0	1	0	7	3	2	0	0	0	0	0	0	1	0	16
4/17	6	0	0	1	2	0	0	1	1	0	0	1	2	0	2	0	1	0	17
4/18	11	2	2	4	3	2	8	3	5	1	2	5	6	7	11	3	4	7	86
4/19	24	11	10	5	10	11	12	3	10	12	21	8	19	8	17	4	20	0	205
4/20	25	11	19	10	19	20	19	9	10	16	14	12	32	17	24	11	21	4	293
4/21	11	8	20	4	10	12	13	5	5	7	5	4	17	6	15	4	2	9	157
4/22	7	7	6	6	4	10	3	1	10	1	7	1	10	4	6	3	3	6	95
4/23	3	2	1	2	1	1	1	1	1	2	0	0	1	0	2	0	0	0	18
4/24	2	2	4	2	0	2	1	1	4	1	1	1	0	1	2	0	1	1	26
4/25	9	4	4	3	7	9	4	3	2	1	5	1	2	3	7	0	2	6	72
4/26	4	5	3	2	10	8	7	5	2	3	2	5	7	0	3	0	3	3	72
4/27	8	1	2	4	3	7	2	2	3	2	2	2	3	1	2	0	3	4	51
누계	130	64	76	45	73	87	80	46	73	53	60	42	110	53	99	27	68	45	1,231

2. 언론별 보도유형

언론사별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가 745건으로 많고, 행사를 알리거나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단순기사는 368건이었다. 지난해의 단순기사와 일반기사가 462건과 446건으로 비슷하였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일반기사가 단순기사에 비하여 2배가량 많은 편이다.

일반적인 보도를 넘어 문제점을 파헤치거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심층기사가 52건, 논평이나 사설이 50건이다.

〈표4〉 언론사별 장애인 기사 보도유형

언론사 보도유형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계
단순보도	37	18	20	5	5	4	2	9	2	5	24	18	48	30	55	13	45	28	368
일반기사	58	38	51	20	61	77	73	28	66	44	32	23	60	23	42	14	22	13	745
논평/사설	23	6	1	1	5	2	4	1	4	1	1	0	0	0	0	0	0	1	50
심층취재	12	2	4	3	2	4	1	8	1	3	3	1	2	0	2	0	1	3	52
누계	130	64	76	45	73	87	80	46	73	53	60	42	110	53	99	27	68	45	1,231

언론사별로 보면 단순보도는 아시아경제(55건), 헤럴드경제(48건), 파이낸셜뉴스(45건), 경향신문(37건) 순으로 많고, 일반기사는 세계일보(77건), 조선일보(73건), 한겨레(66건), 서울신문(61건), 헤럴드경제(60건), 경향신문(58건), 동아일보(51건) 순으로 많다.

일반기사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11(PC 운영체제)에서 화상회의 때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접근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 등을 다룬 “장애인 접근성 높은 기술로 앞서가는 미국 IT 기업들”(경향신문, 2022.4.19.),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인수위, 장애인의 날 앞두고 정책 발표”(아시아경제, 2022.4.19.) 등은 눈여겨 볼만한 기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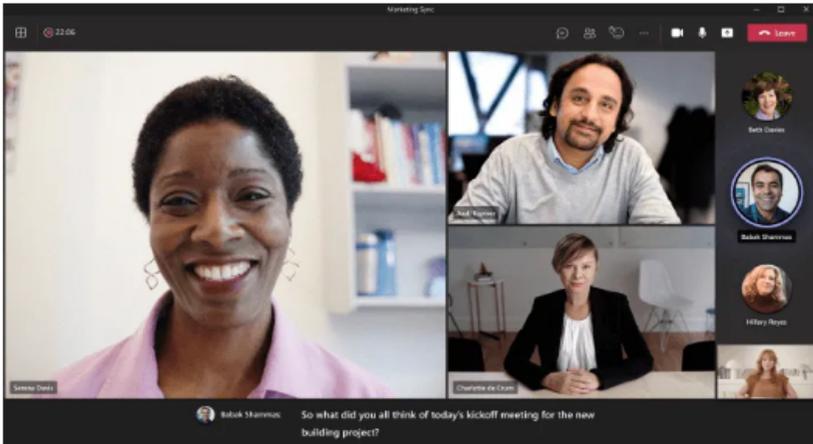
〈기사1〉 일반보도 기사의 예(경향신문, 2022.4.19.)

경향신문

장애인 접근성 높은 기술로 앞서가는 미국 IT 기업들

입력 : 2022.04.19 16:29 | 수정 : 2022.04.19 17:08 | 조미담 기자

MS, 청각장애 직원 아이디어로 화상회의 '실시간 자막' 구글·애플, '장애인 접근성'팀 두고 새 기술·제품 협의 한국, 이벤트성 고용…“개발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화상회의 도중 실시간 자막이 나오는 장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11에 화상회의 시 실시간 자막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S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인 팀즈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각종 사람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자막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청각장애가 있는 MS 애저(클라우드서비스)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느낀 불

논평과 사설의 경우 52건이 올라왔는데, 외부 기고를 통한 시사 비평 기사들도 눈에 띄었다. 그 가운데 코다(CODA)¹⁾와 농인(聾人)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코다에게 차별금지법이란”(한겨레, 2022.4.20.)은 독특한 내용이었다.

1) 코다(CODA)는 'Child of deaf adult'의 약어이며, 청각장애 또는 농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청인(聽人, 듣는 사람) 자녀를 말한다.

심층으로 취재한 기사도 50건인데, 수어통역사를 통하여 농인의 소통현황을 다룬 “제 수어로 장애인 관객도 함께 웃을 때 기뻐요”(조선일보, 2022.4.19.), 장애인의 돌봄 등의 문제를 다룬 “부족한 장애인 정책이 비극되지 않도록’...장애인 가족의 호소”(아시아경제, 2022.4.20.),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룬 “큰일이네’...휠체어 장애인에게 서울형 저상버스는 없었다”(헤럴드경제, 2022.4.20.),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다룬 “순둥이 리트리버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된다.”(세계일보, 2022.2.27.) 등이 눈에 띄었다.

〈기사2〉 심층기사의 예(아시아경제, 2022.4.20.)

아시아경제

"부족한 장애인 정책이 비극되지 않도록"...장애인 가족의 호소

[f](#)
[t](#)
[📄](#)
최종수정 2022.04.20 15:51 기사입력 2022.04.20 12:33
🔊 뉴스듣기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박2일 집중 결의대회에서 단체 식발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무슨 자유와 평등이 있었냐"고 물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할 기회를 갖고, 감옥 같던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기를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 장애인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일반기사의 주제를 12개로 분류했다. 분류기준은 장애인과 관련한 이슈,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류에는 지난해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류한 주제는 접근성/이동권, 노동/일자리, 학습/교육,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연금, 권리침해/학대, 법률/정책/예산, 여가/건강/운동, 정보통신/기술, 장애인 인식, 장애인 일반, 종교(기관)이다.

이 가운데 기사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접근성/이동권'이 404건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시위 등 이동권 투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일반기사의 주제별 보도량



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일반' 기사(108건), '여가/건강/운동'(79건), '장애인 인식'(44건), '법률/정책/예산'(39건) 등이다. '장애인등급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장애인등급제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행한 영향이 크다.

〈표5〉 일반기사의 주제별 보도량

언론사 기사 주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접근성 /이동권	13	17	38	9	28	38	28	24	23	20	21	16	33	20	33	10	25	8	404
노동 /일자리	2	2	2	1	1	6	4	3	1	5	5	7	7	2	4	4	4	1	61
학습 /교육	0	0	0	1	0	0	0	2	1	0	3	0	0	2	1	0	0	0	10
장애인 등급제	2	0	0	0	0	0	0	0	2	0	0	0	0	0	2	0	0	0	6
부양의무 /연금	2	4	2	0	5	5	1	1	1	2	0	0	3	1	2	0	0	0	29
권리침해 /학대	4	0	2	1	1	0	0	2	5	3	2	0	3	2	1	0	1	0	27
법률/정책 /예산	2	0	3	1	4	2	2	0	2	1	4	0	8	0	4	1	5	0	39
여가/건강 /운동	5	2	4	4	5	0	17	1	1	3	4	4	9	1	2	6	11	0	79
정보통신 /기술	10	2	0	0	3	2	2	1	1	0	2	1	2	1	0	0	0	1	28
장애인 인식	2	2	2	2	5	3	7	2	2	6	1	2	4	0	2	1	0	1	44
장애인 일반	14	6	5	1	5	5	3	4	14	8	10	7	15	2	6	0	1	2	108
종교 (기관)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누 계	56	42	58	20	57	61	63	40	53	49	52	37	84	32	57	22	47	13	842

‘접근권/이동권’ 관련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경향신문, 2022.4.19.)이다.

<기사> 장애인 이동권 관련 기사의 예(경향신문, 2022.4.19.)

경향신문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동권 시위. 영화 <버스를 타자>의 한 장면. 박종필주모사업회 제공

이준석 대표·박경석 대표의 '썰전'
 이동권 시위를 둘러싼 혐오 여전
 20년 전 영화 '버스를 타자' 데자뷔

수어통역·자막도 제공하지 않아
 과연 동등한 출발점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기사는 외부 기고인의 기사로, 장애인이 왜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는 것인지, 물리적인 이동권만이 아니라 소통 등도 중요한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기사로 잘 풀어내고 있다. 학습권 관련 기사는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광주 중·고교 10곳 중 2곳 장애 학생은 있는데 특수학급은 없어”(한겨레, 2022.4.20.) 등이 눈에 띈다.

한겨레

“광주 중·고교 10곳 중 2곳 장애 학생은 있는데 특수학급 없어”

광주교사노조 전체학교 실태조사
시교육청 “통학, 전문교사 등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51개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급이 없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리침해/학대’와 관련한 기사도 27건이 검색되었다. 그 가운데 “서울시-학대 장애아동 예방 및 보호 강화”(헤럴드경제, 2022.4.20.) 기사의 경우, 서울시와 경찰청이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기사5〉 장애 학대 예방 관련 기사의 예(헤럴드경제, 2022.4.20)

헤럴드경제

서울시-서울경찰청, 학대 장애아동 예방 및 보호 강화

2022.04.20 08:18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시청이 장애인 인식 개선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대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협력에 나선 것이다.

기사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기사는 79건이 검색되는 등 많은 편이다. 이러한 기사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이나 정보통신 기술(ICT)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기술 등의 결합이 일상화되는 추세와 맞물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휠체어 탑승차, 목소리 복원... 장애인의 삶 지원 앞장서는 기업들”(세계일보, 2022.4.20.)은 인공지능 기술을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지원하는 기업들의 사업에 대해 알리고 있다.

세계일보

휠체어 탑승차, 목소리 복원... 장애인의 삶 지원 앞장서는 기업들



2020년 7월 한 여성이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기가지니 ‘내 목소리 동화’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한시적 이벤트로 제공돼 이미 종료된 서비스였다. 이 여성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목소리를 잃은 뒤에도 자녀들이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연을 접수한 상담원과 담당 부서는 이 가족에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의 협력을 끌어냈다. 3개월 후 환자는 기도 절개 수술을 받게 됐지만 가족들은 복원해 놓은 그의 목소리를 기가지니 ‘내 목소리 동화’와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마음톡(TALK)’ 앱을 통해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됐다.

일반기사 가운데 비중이 큰 것은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기사가 전체 기사의 30% 이상을 차지했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110건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분야인데, 전체 기사가 7건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기사가 눈에 띈다. 신학교 내 장애인의 접근 실태를 기사화한 “주요 신학교 가보니... 곳곳이 ‘골고다 언덕’ 장애인 이동권 장벽 높아”(국민일보, 2022.4.19.)는 교육기관들이 장애인의 종교의 자유를 가로막는 실태를 다루고 있다.

<기사> 종교관련 기사의 예(국민일보, 2022.4.19.)



www.kmib.co.kr

주요 신학교 가보니...

곳곳이 '골고다 언덕' 장애인 이동권 장벽 높아



중증뇌병변장애인으로서는 예비 목회자 과정을 이수하다 지난해 1월 한신대 신대원을 자퇴한 유진우씨
가 19일 한신대 기숙사 입구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석현

“시간을 되돌린 거 같네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전동휠체어에 앉은 유진우(27)씨는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찾은 학교 기숙사 앞에서 나지막이 한숨을 뿔어냈다. 그는 지난해 1월 “대학원에 들어와 느낀 것은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자퇴서를 냈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인 유씨는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품어왔던 목회자의 꿈을 접었다(국민일보 2021년 1월 21일자 29면 참조).

3. 지하철 타기 시위 기사와 차별어 사용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시위는 장애인의 날 전·후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수의 시민들이 시위를 이해하고 공감해주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불모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은 당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였다. SNS와 일반 언론을 통하여 장애인의 집회 방식을 연일 비판했다. 결국 집회를 이끌고 있던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한 방송사에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다 보니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지하철 타기 시위 관련 기사는 395건이다. 언론마다 관심 정도가 다르긴 했으나 아주경제(4건), 문화일보(9건), 한국경제(11건)를 제외한 모든 언론에서 20여 건 내외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세계일보 43건, 동아일보 35건 등 많은 보도를 한 언론들도 있었다.

〈표6〉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시위 관련

언론사 주 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지하철 타기	30	25	35	9	28	43	30	24	23	20	21	11	26	18	20	4	21	7	395

보도 내용은 시위를 한다는 단순 보도부터 시위를 하는 이유, 장애인 이동권 실태 등 시위를 하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사가 다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나 전장연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신는 기사도 있었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기사는 “尹 인수위, 앵무새 vs 장애인 인식에 퐁칠 ‘시위방식’ 두고 장애인 단체 충돌”(아시아경제, 2022.4.22.)이다.

〈기사8〉 지하철타기 시위관련 기사의 예(아시아경제. 2022.4.22.)

서울신문

이준석 “지하철 인질 시위, 비문명적”

전장연 “21년 기다린 문제”

JTBC ‘셜전’서 일대일 토론

李 “지하철 마비시켜 다수 불편 야기, 뜻 관철”

박경석 “이준석 ‘불모’ 발언에 비난 늘었다”

이준석 “100% 옳다 주장 안하면 협의 가능”

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과 “죄송, 이해 부탁”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프로그램 ‘셜전라이브’ 생방송 일대일 토론을 하고 있다. 2022. 4. 13 사진공동취재단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어의 경우 눈에 띄게 줄었다. 차별어를 사용한 기사는 총 9개였다. ‘절름발이’ 3개, ‘병어리’ 4개, ‘정신박약’ 1개, ‘정신병’ 1개였다. 지난해의 조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정신병’ 4건, ‘병어리’ 3건, ‘불구자’와 ‘정상인’ 각 2건, ‘병신’, ‘절름발이’, ‘귀머거리’ 각 1건 등 17건이 검색된 것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고, ‘불구자’, ‘귀머거리’라는 용어는 사라졌으나 ‘절름발이’나 ‘병어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표7〉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어 사용

언론사 차별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누 계
지체 장애	절름발이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3
언어 장애	병어리	0	0	0	0	0	0	2	0	0	0	0	1	0	0	0	0	0	1	4
지적 장애	정신 박약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정신병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누 계		0	0	1	0	0	0	4	0	0	1	0	1	0	0	0	0	0	2	9

한편, 2014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날 주간 동안의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 차별용어가 406건이 나왔다. 그 가운데 ‘병어리’ 110건, ‘장님’ 134건, ‘절름발이’ 55건, ‘불구자’ 39건, ‘귀머거리’ 29건, ‘정신박약’ 25건 등이 쓰였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언론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다른 해와 다른 측면이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고,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였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오던 장애인들의 지하철 타기 시위도 언론의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기사는 지난해보다 많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도 보도되었다. 특히 지하철 타기 시위에 대한 보도들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알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별어의 경우 기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언론에서 차별어가 완전히 퇴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용자료

[인용자료]

김철환, 2014년 용어 모니터링 분석, 『2014년 모니터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김철환, 2014년 용어 모니터링 분석, 『2021년 모니터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용기사]

“광주 중·고교 10곳 중 2곳 장애 학생은 있는데 특수학급 없어”(한겨레, 2022.4.20.)
“‘부족한 장애인 정책이 비극되지 않도록’...장애인 가족의 호소”(아시아경제, 2022.4.20.)
“서울시-학대 장애아동 예방 및 보호강화”(헤럴드경제, 2022.4.20.)
“‘尹 인수위, 앵무새’ vs “장애인 인식에 퐁칠” ‘시위방식’ 두고 장애인 단체 충돌”(아시아경제, 2022.4.22.)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경향신문, 2022.4.19.)
“장애인 접근성 높은 기술로 앞서가는 미국 IT 기업들”(경향신문, 2022.4.19.)
“주요 신학교 가보니...곳곳이 ‘골고다 언덕’ 장애인 이동권 장벽 높아”(국민일보, 2022.4.19.)
“휠체어 탑승차, 목소리 복원... 장애인의 삶 지원 앞장서는 기업들”(세계일보, 2022.4.20.)

역대 ‘장애인의 날’ 언론 보도 분석(2008년 ~ 2022년)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2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언론 지면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해왔다.

한편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 되는 해다¹⁾. 7년 동안의 입법 운동 끝에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지만 정작 시행된 2008년은 과연 얼마나 이 법으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해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 이후 만 열흘 동안 진정된 차별 사례가 총 97여 건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장애인이 느끼는 현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만 바라보고 환영하기에는 너무도 절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²⁾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의 일상은 2008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졌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15년간의 ‘장애인의 날’주간(4월 20일 전후 2주간)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언론 기사를 통해 15년 동안의 장애인 관련 언론 기사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 대상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발표해 온 “모니터 보고서”며, 보고서에서 인용된 신문을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10개, 경제일간지가 8개다.³⁾

1) 시행일이 2008년 4월 11일이므로 실제 시행 15주년이 되는 날은 2023년 4월 11일이다.

2) 여전히 일회성으로 다뤄지는 장애인 관련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 모니터 위원회 2008

3) 중앙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였고, 경제일간지는 2010년부터 4개 경제지(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였으며, 2019년부터 4개의 경제지(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가 추가되었다.

II. '장애인의 날' 주간의 장애인 관련 보도 기사

1. 언론사별 장애인 관련 기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집계한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장애인 주간'의 장애인 관련 보도는 10개 중앙일간지의 경우 3,156건이었고, 8개 경제일간지의 경우는 1,969건이었다.

〈표1〉 '장애인 주간'의 장애인 기사 보도

(단위: 건)

구분	중앙일간지	경제일간지
보도량	3,156	1,969
언론사별 평균 보도량	315.6	246.1
연도별 평균 보도량	210.4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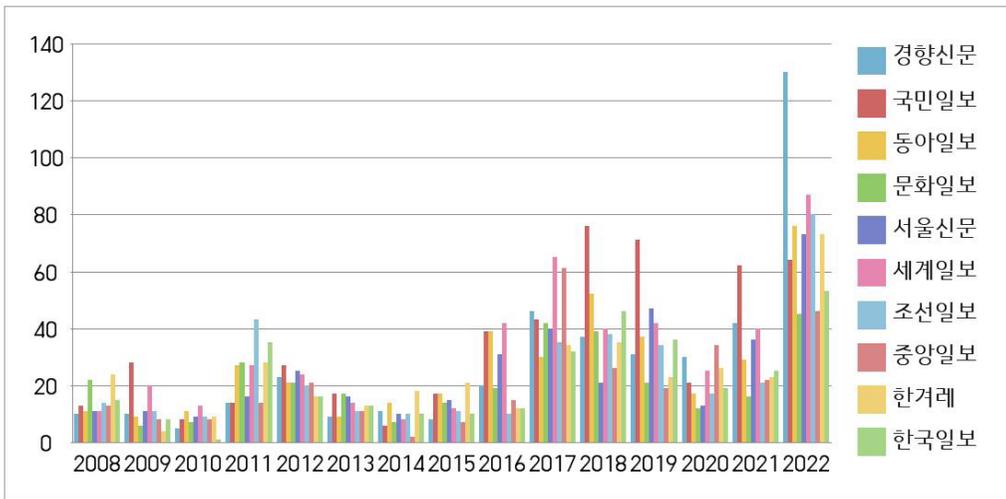
3,156건의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간지의 경우 연도별 평균 보도 건 210.4보다 적게 보도한 해는 모두 여섯 해였다. 이중 2010년이 80건, 2014년이 96건이었다. 특히 2016년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4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언론의 관심은 사고와 구조 소식에 집중되었기에 장애인 관련 기사는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때문인지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 한겨레의 '장애등급제'와 '활동 지원' 기획 기사 이외에는 이렇다 할 기사가 드물었다.

〈표 2〉 연도별 중앙일간지 보도량

(단위: 건)

연도 \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2008	10	13	11	22	11	11	14	13	24	15	144
2009	10	28	9	6	11	20	11	8	4	8	115
2010	5	8	11	7	9	13	9	8	9	1	80
2011	14	27	27	28	16	27	43	14	28	35	259
2012	23	27	21	21	25	24	20	21	16	16	214
2013	9	17	9	17	16	14	11	11	13	13	130
2014	11	6	14	7	10	8	10	2	18	10	96

2015	8	17	17	14	15	12	11	7	21	10	132
2016	20	39	39	19	31	42	10	15	12	12	239
2017	46	43	30	42	40	65	35	61	34	32	428
2018	37	76	52	39	40	40	38	26	35	46	429
2019	31	71	37	21	47	42	34	19	23	36	361
2020	30	21	17	12	13	25	17	33	26	19	213
2021	42	62	29	16	36	40	21	22	23	25	316
2022	130	64	76	45	73	87	80	46	73	53	727
계	426	519	399	316	393	470	364	306	359	331	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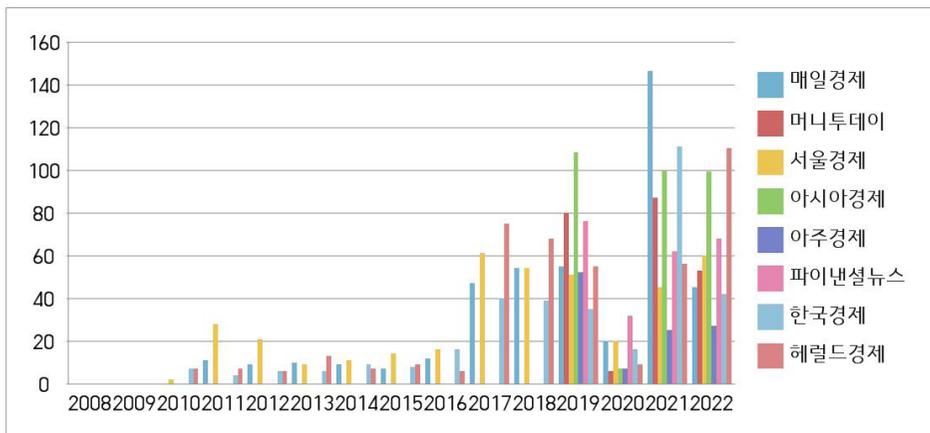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중앙일간지 보도 건 수

한편 경제일간지는 2014년 '장애인 주간'의 보도기사가 36건으로 2013년의 38건, 2015년의 38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경제일간지 보도량

(단위: 건)

연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계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2010	0	0	2	0	0	0	7	7	16
2011	11	0	28	0	0	0	4	7	50
2012	9	0	21	0	0	0	6	6	42
2013	10	0	9	0	0	0	6	13	38
2014	9	0	11	0	0	0	9	7	36
2015	7	0	14	0	0	0	8	9	38
2016	12	0	16	0	0	0	16	6	50
2017	47	0	61	0	0	0	40	75	223
2018	54	0	54	0	0	0	39	68	215
2019	55	80	51	108	52	76	35	55	512
2020	20	6	20	7	7	32	16	9	117
2021	146	87	45	100	25	62	111	56	632
2022	45	53	60	99	27	68	42	110	504
계	425	226	392	314	111	238	339	428	1,969



〈그림 2〉 연도별 경제일간지 보도량

다만 2015년의 기사는 중앙일간지가 132건, 경제일간지가 38건으로 2013년의 보도 건 수보다 많았던 것은 세월호 참사 1주년 등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다소 의외였다. 고속버스 타기 운동,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 등 장애계의 활발한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

한편 2017년 '장애인 주간' 보도 기사는 중앙일간지가 428건으로 직전 해인 2016년 239건 보다 약 두 배 많았다. 경제일간지도 223건으로 2016년 50건의 기사보다 약 네 배 많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촛불 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계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고,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2022년 '장애인 주간'의 장애인 기사는 경제일간지가 2021년 632건에서 약 100여건 줄어든 504건 보도된 반면 중앙일간지는 2021년 316건 보다 두 배 늘어난 727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던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시위는 장애인의 날 전·후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시위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지만 일부에서는 시민의 출근을 불모로 잡고 있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주간' 언론사별 장애인 관련 기사는 중앙일간지가 2008년 144건에서 2022년 727건으로, 경제일간지가 2010년 16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장애인 관련 이슈가 언론의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다.

2. 보도유형별 장애인 관련 기사

신문기사는 크게 개인적 의견을 배제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이 담긴 피쳐 기사로 구분된다. 어떤 사실만 보도한 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이며, 기자의 관점이 들어간 기사가 피쳐 기사다.⁵⁾ 어떠한 장애인 관련 기사든지 이 기사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할 때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쳐 기사인 심층기사·기획·특집기사·인터뷰기사·사설 및 내부칼럼·외부칼럼 및 독자투고·사진 기사 등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그동안 기사를 전통적인 기사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것과 전통적인 기사 분류를 재정의한 단순 보도·일반 기사·논평/사설·심층취재로 분석한 것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순 보도, 일반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에 속하며, 심층기사·기획·특집기사·인터뷰기사가 심층취재·사설 및 내부칼럼·외부칼럼 및 독자투고가 논평/사설에 속하는 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정의한 단순 보도, 일반기사·논평/사설·심층취재 분류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4) 김철환, "제35회 장애인의 날" 언론모니터링", 2015년 모니터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5) 조철래, 미디어 글쓰기, 2015. 5. 20., 네이버 지식백과

언론사별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나 장애인 행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단순기사보다 일반적인 보도를 넘어 문제점을 파헤치거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심층기사나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한 논평이나 사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3〉 참조). 15년간의 보도량을 종합해 볼 때, 단순 보도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신문은 200건의 국민일보였고, 한겨레는 87건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야 할 논평/사설은 경향신문이 59건의 기사를 쓴 반면, 조선일보는 20건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보도를 넘어 문제점을 파헤치거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심층기사의 경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건이었고, 경향신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38건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논평/사설에서 장애인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기에 보도량도 적었고,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이 당면한 현실을 잘 짚어내고 있다. 또한 신문사 내부 필진이 짚어내기 부족한 점은 외부칼럼이나 기고를 통해서 보충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중앙일보는 2008년 4월 19일자 사설〈한국은 장애인 후진국〉과 경향신문 4월 21일자 사설〈장애인의 날 걸치레 행사보다 중요한 것〉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장애인 복지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4월 11일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⁶⁾

〈표 3〉 보도유형별 중앙일간지 보도량

(단위: 건)

연도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단순 보도	일반 기사	논평/ 사설	심층 취재																				
2008	5	3	2	0	6	6	1	0	5	3	3	0	13	8	1	0	8	1	0	2				
2009	4	5	1	0	13	11	1	3	1	6	1	1	2	3	0	1	6	5	0	0				
2010	2	3	0	0	2	2	3	1	5	4	1	1	3	4	0	0	4	2	3	0				
2011	10	3	0	1	16	8	2	1	17	8	2	0	18	7	2	1	16	7	3	2				
2012	11	3	1	8	23	0	4	0	12	6	2	1	12	2	2	5	19	4	1	1				
2013	0	6	2	1	0	14	2	0	0	9	0	0	0	15	2	0	2	10	2	2				
2014	0	10	1	0	0	6	0	0	1	10	3	0	0	6	1	0	0	9	0	1				
2015	2	3	1	2	8	5	1	2	8	4	2	3	5	6	1	2	3	9	0	3				
2016	1	14	4	1	4	29	5	1	4	26	5	3	0	16	0	3	2	24	8	0				
2017	15	26	5	0	11	27	5	0	7	20	3	0	15	23	4	0	12	23	5	0				
2018	16	6	5	5	30	22	1	7	22	13	4	5	15	12	0	3	19	13	1	5				
2019	13	12	2	4	45	21	4	1	27	9	1	0	10	10	1	0	18	21	1	7				
2020	2	17	8	3	4	14	0	3	9	5	2	1	3	6	1	2	2	8	1	2				
2021	9	28	4	1	20	39	0	3	11	18	0	0	3	13	0	0	10	26	0	0				
2022	37	58	23	12	18	38	6	2	20	51	1	4	5	20	1	3	5	61	5	2				
소계	127	197	59	38	200	242	35	24	149	192	30	19	104	151	16	20	126	223	30	27				
계	426				519				399				316				393							

6)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 모니터 위원회, "여전히 일회성으로 다뤄지는 장애인 관련 보도", 2008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연도	언론사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2008	7	2	2	1	7	4	3	0	3	9	1	0	9	10	4	0	8	5	2	0		
2009	3	11	0	6	3	6	0	2	0	5	2	1	1	2	1	0	2	6	0	0		
2010	10	3	0	0	5	4	0	0	3	3	1	1	3	3	3	0	2	3	2	0		
2011	14	10	0	3	21	13	2	7	8	4	2	0	17	7	2	2	21	10	1	3		
2012	16	6	2	0	7	5	4	4	12	1	3	5	12	2	1	1	9	5	2	0		
2013	1	11	0	2	0	10	1	0	0	7	3	1	0	9	2	2	6	6	1	0		
2014	0	4	3	1	0	9	1	0	0	0	2	0	0	8	1	1	0	15	3	0		
2015	5	4	0	3	1	7	0	3	1	5	0	1	4	12	0	5	1	4	1	4		
2016	7	35	2	0	1	10	0	0	2	13	0	0	1	9	2	0	1	10	1	1		
2017	12	41	12	0	5	28	2	0	16	39	6	0	15	14	5	0	12	17	3	0		
2018	18	13	1	4	16	15	0	1	7	4	0	3	9	7	2	2	22	26	1	5		
2019	25	14	1	2	21	13	0	0	7	10	0	2	3	12	3	5	17	13	3	3		
2020	2	19	1	3	0	15	1	1	10	15	3	5	10	8	2	6	0	13	3	3		
2021	17	19	2	2	6	13	2	0	3	17	2	0	1	18	3	1	2	17	2	4		
2022	4	77	2	4	2	73	4	1	9	28	1	8	2	66	4	1	5	44	1	3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470				364				306				359				331					

〈표 4〉 보도유형별 경제일간지 보도량

(단위: 건)

연도	언론사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단순보도	일반기사	논평 / 사설	심층취재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2011	9	1	1	0	0	0	0	0	13	3	0	0	0	0	0	0		
2012	7	1	1	0	0	0	0	0	15	5	1	0	0	0	0	0		
2013	0	10	0	0	0	0	0	0	4	5	0	0	0	0	0	0		
2014	2	7	0	0	0	0	0	0	0	9	1	1	0	0	0	0		
2015	6	5	0	3	0	0	0	0	2	4	0	1	0	0	0	0		
2016	0	9	3	0	0	0	0	0	4	7	3	2	0	0	0	0		
2017	20	22	5	0	0	0	0	0	23	36	2	0	0	0	0	0		
2018	26	24	0	2	0	0	0	0	25	24	0	1	0	0	0	0		
2019	34	17	2	2	47	24	0	2	32	14	2	3	88	17	1	2		

2020	3	10	6	1	1	4	0	1	7	10	1	2	0	6	0	1
2021	122	23	0	1	62	24	0	1	18	25	2	0	45	53	1	1
2022	28	13	1	3	30	23	0	0	24	32	1	3	55	42	0	2
소계	229	129	18	9	110	52	0	4	144	143	12	10	133	76	2	4
계	425				226				392				314			

연도	언론사 유형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단순 보도	일반 기사	논평/ 사설	심층 취재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1	0	0	6	1	0	0	0
2011		0	0	0	0	0	0	0	3	1	0	0	7	0	0	0	0
2012		0	0	0	0	0	0	0	3	3	0	0	2	2	0	2	2
2013		0	0	0	0	0	0	0	0	3	0	0	0	13	0	0	0
2014		0	0	0	0	0	0	0	6	2	0	1	1	5	1	0	0
2015		0	0	0	0	0	0	0	2	6	0	0	4	3	0	2	2
2016		0	0	0	0	0	0	0	8	8	0	0	0	4	0	2	2
2017		0	0	0	0	0	0	0	14	25	1	0	25	43	7	0	0
2018		0	0	0	0	0	0	0	13	7	0	6	26	22	0	4	4
2019		31	18	0	3	56	17	0	3	28	7	0	46	8	0	1	1
2020		1	5	0	1	15	11	3	3	5	9	0	2	3	4	0	2
2021		7	15	0	3	16	44	0	2	94	16	0	1	16	38	2	0
2022		13	14	0	0	45	22	0	1	18	23	0	1	48	60	0	2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11				238				339				428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경제일간지 경우 논평/사설에서 장애인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단순 보도와 일반 기사에 치중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표 4 참조). 분명 장애인도 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일간지는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앙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경제일간지에 비해, 사회 전반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주제별 장애인 관련 기사

장애인 관련 기사를 특정 주제별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았다. 언론 모니터링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언론의 관심 영역이 넓지 않았고, 장애인 관련 이슈 역시 복잡하지 않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차

장애인 관련 이슈가 다양해졌다. ‘접근성/이동환경’주제만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별도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에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도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언론에서 다루는 주제나 영역도 넓어져 이를 간단히 분류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사의 주제를 접근성/이동권·노동/일자리·학습/교육·장애등급제·부양의무/연금, 권리침해/학대, 법률/정책/예산, 여가/건강/운동, 정보통신/기술·장애인 인식·장애인 일반·종교(기관)/행사의 12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표 5〉 참조). 이 중 장애인 일반, 종교(기관)/행사 ‘접근성/이동환경’주제와 ‘정치참여/참정권’주제 및 권리침해/학대 주제에 대해 15년간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장애인 일반’, ‘종교,기관/행사’

〈표 5〉에서 보듯이 지난 15년간 많이 다루어진 장애인 주제는 장애인단체 행사를 알리는 단신이나 미담, 장애 극복 사례가 포함된 ‘장애인 일반’, ‘종교, 기관/행사’였다. 장애 극복 사례 기사는 보도량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모든 신문에서 다루고 있었다(세계 최고속 휠체어 ‘출격 준비 끝(한겨레 2008. 04. 17.)). 이러한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하여 2008년 박승희 교수는 동아일보 4월 19일 자 기고 “장애인 영웅 만들기’ 평범한 장애인 울린다”를 통해 일부 특별한 장애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평범한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종교기관의 장애 감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종교기관 기사는 “주요 신학교 가보니...곳곳이 ‘골고다 언덕’ 장애인 이동권 장벽 높아”(국민일보, 2022. 04. 19.)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주제는 전체 기사 6,356건 중 각각 2,221건과 1,279건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08년 이전의 기사에서는 인물 취재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장애 극복에 국한 되어왔던 것에 반해 2008년 기사에서는 일부 언론이긴 하나, 한 사람을 통해 그가 몸담고 있는 직업 세계나 현안을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 ‘접근성/이동환경’

‘접근성/이동환경’주제는 2008년에는 따로 설정되지 않았던 주제지만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후 계속 제기되었던 이슈였다. 2008년 모니터링에서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8건의 기사가 발견되었다(벚꽃축제 보러 가다 피눈물 흘린 장애인들, 동아일보, 04. 21.). 2015년에는 21건의 이동권 관련 기사가 보도(눈 가리고 2m 가는데 1분... 방향 잃고 제자리 뱅뱅 일췌(중앙일보, 2015. 04. 20.) 되는 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60건에서 2022년에는 404건을 차지하고 있다(“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 그 시선부터 철폐되어야 한다”경향신문, 2022. 04. 19.). 이는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 등 이동권 투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권리침해/학대'

'권리침해/학대' 주제를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한겨레 보도의 경우, 2008년 4월 15일 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인권 출발점" 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부족한 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 같은 신문 4월 17일 "장애인 차별금지 한다면서 예산 삭감" 기사에서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위 조사 인력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을 다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서 시행시기에 맞춰 적절한 보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은 차별금지법 시행 5년째를 맞아 경향신문의 높은 은행 문턱과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병원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대출 거절 은행... 점자 자료 안 준 병원 차별금지법 4년, 여전히 서러운 장애인(경향신문, 2008. 04. 2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되던 2016년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 강제 입원 - 찬성/반대(서울경제, 2016. 04. 21)).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 권리기에 이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체포나 구금 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영장주의 원칙 안 지켜져" "사회 복귀 위한 유일한 수단"(경향신문, 2016. 04. 14.). 시행 15주년인 2022년에는 27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눈여겨볼 만한 기사는 "서울시-학대 장애 아동 예방 및 보호 강화"(헤럴드경제, 2022. 04. 20.) 기사였다. 이 기사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장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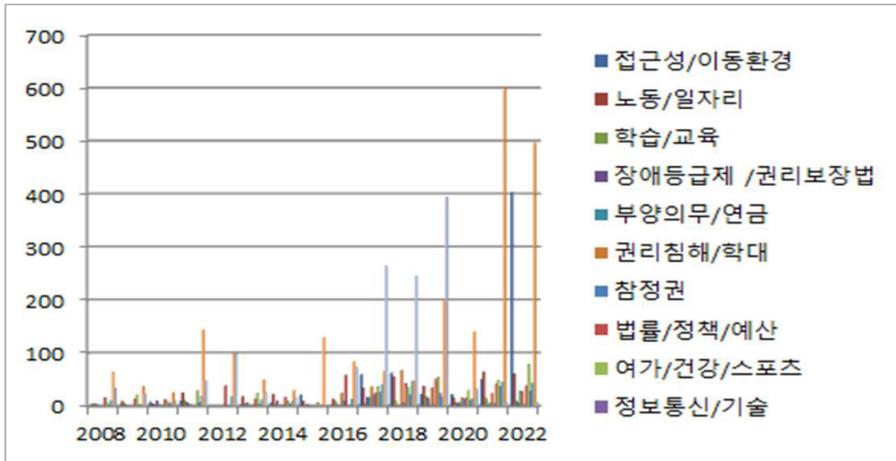
〈표 5〉 주제별 보도량

(단위: 건)

주제 연도	접근성 /이동환경	노동 /일자리	학습/교육	장애등급제 /권리보장법	부양의무 /연금	권리침해 /학대	참정권
2008	0	4	5	3	0	0	0
2009	0	9	5	1	0	0	0
2010	8	4	1	10	3	1	1
2011	10	25	11	7	4	3	0
2012	0	0	0	0	0	0	0
2013	3	18	5	6	1	3	0
2014	6	23	4	10	0	3	1
2015	21	9	0	3	0	0	0
2016	0	14	9	0	0	25	11

2017	60	34	5	17	17	37	21
2018	63	56	10	0	0	68	6
2019	23	38	19	15	0	35	0
2020	22	15	7	5	8	16	13
2021	51	65	14	1	6	24	5
2022	404	61	10	6	29	27	0
계	671	375	105	84	68	242	58

주제 연도	법률/정책 /예산	여가/건강 /스포츠	정보통신 /기술	장애인 인식	장애인 일반	종교,기관/ 행사	계
2008	16	7	0	11	64	34	144
2009	14	22	0	3	38	23	115
2010	13	8	4	8	26	9	96
2011	0	30	7	20	144	48	309
2012	39	0	0	18	100	99	256
2013	14	25	5	12	50	26	168
2014	17	10	4	9	30	15	132
2015	0	7	0	0	130	0	170
2016	59	0	0	13	84	74	289
2017	25	37	26	41	66	265	651
2018	43	36	21	47	48	246	644
2019	51	55	24	17	201	395	873
2020	16	30	11	14	141	32	330
2021	42	49	37	46	602	6	948
2022	39	79	28	44	497	7	1,231
계	388	395	167	303	2,221	1,279	6,356



〈그림 3〉 주제별 보도량

라. '정치참여/참정권'

'정치 참여/참정권' 주제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17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8년의 보도를 볼 필요가 있다.⁷⁾ 이 3개년의 '장애인 주간'은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 있어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참여의 의미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투표 행위와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2016년 '장애인 주간'의 선거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싣고 있다(@뉴스룸/이승진 장애인 없는 비례대표(동아일보, 2016. 04. 19.)).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년의 '장애인 주간'은 20건의 투표 관련 보도가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부양의무제도의 폐지 등 후보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 보도가 많아 정작 참정권에 대해서는 부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의 투표소 점검 등을 기사화한 헤럴드경제의 "수원시 대선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2017. 04. 11.)"와 지역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투표를 보도한 한국일보의 "경북 경산시 장애인 모의투표 체험 (2017. 04. 13.)" 기사는 눈여겨 볼만한 기사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있었던 2020년 '장애인 주간'은 13건의 참정권 관련 보도가 있었으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인의 안내견의 국회 출입 허용에 관한 보도로 지면이 뒤덮이기도 했다.

7) 2008년 4월 9일과 2012년 4월 11일에도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장애인의 날 전후 2주간의 기간이 아니었기에 배제하였다

마. ‘여가/건강/스포츠’

‘여가/건강/스포츠’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매년 꾸준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난생처음 기차로 세상 나들이(동아일보, 2009. 04. 09)).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을 뿐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기고 장애인 정책, 이제는 건강이다(매일경제, 2016. 04. 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뒤덮은 힘겨운 시기와 겹쳤던 2020년 ‘장애인 주간’은 선거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이 초기이고 그 뒤에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확대될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이나 메뉴얼 등이 개발된 것이 없는 등 미증유의 재난으로 대다수 장애인의 삶이 벼랑으로 몰린 시기에 일부 언론은 그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냈다(‘음성 판정 전엔 응급 입원 불가’코로나로 방치된 정신장애인들(한겨레, 한겨레 12면 1단2020. 04. 23.)). 그러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상만을 보도했을 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2020년 6월 9일자 조선일보의 “자가격리 중증 장애인 돌보려 동반 입소 ‘다음에도 첫 번째로 달려갈 겁니다’”기사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진솔하면서도 따뜻 하게 전달했다.

Ⅲ. 나가며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 되는 해다. 2008년 장애인의 희망과 우려 속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2년을 관통하고 있는 ‘접근성/이동환경’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서 ‘장애인의 권리 제자리 찾기’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후 2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 요구를 정치권은 외면해 온 셈이다.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동환경 개선 요구는 어느 특정 기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언론은 이동환경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본질을 알려 갈등 요소가 될 소지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기념식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 등이 열리고, 이날을 전후한 ‘장애인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언론에서도 이 시기를 맞이하여 장애인 관련 행사는 물론 장애인 이슈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한다. 지난 15년간의 장애인 주간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살펴보았듯이 우리 언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이슈 보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장애인 이슈를 개별 사안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대안을 고민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해주길 기대해 본다.



기획모니터 2

3. 언론에 비친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송경재(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4. 장애인단체 시위와 장애인이동권
김주현((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5.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장애인 정책 기획모니터
백정연(소소한 소통 대표)
6. 2022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미디어 속 장애인
김현식(문화콘텐츠학 박사,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언론에 비친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정책학과

I. 전쟁 속에 치러진 동계패럴림픽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류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전 세계적인 봉쇄와 교류 이동의 감소, 시민권 제한 등 과거 100여 년 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혼란이 현실화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 국제 정치·경제적 이동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백신 개발, 방역 일상화,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팬데믹 후폭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팬데믹 영향은 장애인에게 더 힘든 상황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 원래 재난과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은 고대부터의 역사적 사실이자 경험이다. 특히, 질병과 전쟁은 노약자와 장애인, 부녀자 등은 생명의 위협만이 아니라 경제적 활동 제약과 이동 제한, 복지혜택의 축소, 사회안전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말 그대로 이중삼중의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팬데믹 영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가깝게는 2020년 하계올림픽과 각종 종목의 세계선수권 대회, 유로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가 연기되는가 하면 프로스포츠 역시 약식으로 진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전쟁과 테러, 지구적 재난 등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멈춘 적이 없었음을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스포츠계에 미친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그 영향으로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Paralympics) 역시 1년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제적인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대회개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구촌의 기대 속에서 성대하게 마감되었다.

그러나 역시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일부 야외 종목을 제외하고 다수 종목 진행 과정에서 무관중이나 제한된 관중만 입장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 사건 속에서 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은 인류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역시 시작 단계에서는 불안감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전 대회였던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다르게 축소된 대회가 진행되었고, 전 세계적인 전쟁 불안감이 고조되어 아쉬움 속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렇지만 패럴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참가한 선수단의 열정으로 팬데믹의 공포를 잠시나마 벗어나 지구촌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공동 목표로 대회가 무사히 진행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패럴림픽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 결과 지구촌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이번 2022년 3월에 개최된 제13회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으로 또 다른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베이징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동계와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한 도시로 기록된 것이다. 제13회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일정은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3월 4일~13일까지 진행되었다. 대회 슬로건은 “Together For a Shared Future(함께하는 미래로)”로서 패럴림픽의 의미를 살렸다. 선수단과 종목 규모 역시 46개국 564명 참가,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한국 선수는 32명, 임원 50명의 규모로 참가했다.

그러나 이번 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이 패럴림픽 기간 계속되었다. 실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월 3일 오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에 대해 퇴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애초 IPC기 선수단 퇴출이란 강경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4년 동안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고려하여 2일엔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출전을 허용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후 IPC는 2022년 3월 3일 긴급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참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러시아 선수단이 대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자 러시아에서는 마치 영웅이 귀환한 것처럼 선수단을 환대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번 패럴림픽 동안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뉴스가 소개되는 등 소외되었던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 차원에서 과거 올림픽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패럴림픽에도 주목하고 의미 있는 뉴스가 생산되었다.

무엇보다 올림픽에 이어 개최된 패럴림픽에서는 기존의 방송과 라디오 등의 전통 레저시 미디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언론사와 선수단, 선수 개인들이 지구촌과 소통하게 되면서 생생한 패럴림픽 소식을 전 세계인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참가 선수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여 대회 전후의 분위기와 자신의 경기 이후 생생한 소감 공개, 선수촌 소개, 종목 선수들과의 교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 영향으로 유명 선수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패럴림픽 이후 구독자나 방문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 역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시각에서 패럴림픽을 보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선된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진행한 과거 패럴림픽 모니터 보고서 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과거에는 일부 장애인 관련 언론사만 다루었던 패럴림픽 뉴스가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언론, 포털 TV 등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으며, 내용 역시 특정 종목의 메달 관련 경쟁 뉴스를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패럴림픽 뉴스가 생산되어 변화된 모습이 발견된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팬데믹이란 어려운 여건에서 치러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국민에게 알려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패럴림픽 자체가 척수 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럴림픽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제시하면, 일부 언론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역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모두 정치적인 뉴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혼란도 패럴림픽의 관심도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보고서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표본추출과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한다. 세부적 언론사 뉴스의 표본추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에서 활용하였다. III장은 포털뉴스에서 부각된 패럴림픽에 관한 부분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2022년 2월 25일부터 2022년 3월 15일 기간 동안 패럴림픽 관련 국내 언론사들의 뉴스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사에서 나타난 패럴림픽 관련 뉴스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V장은 모니터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 나타난 한국 언론사의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모니터 표본 추출 방법론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언론사 보도 모니터를 위해 국내 최대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했다.¹⁾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제휴된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의 뉴스 보도를 일반인들에게 분석화 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모니터에서는 <빅카인즈>는 국내 언론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석 시스템(빅데이터 분석 결과 추출과 시각화)를 사용하였다. 제공되는 <빅카인즈> 서비스 중에서 본 모니터 보고서에서 활용한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인 뉴스 검색과 연결망 분석이다.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언론사 보도 모니터 보고서의 분석 대상 언론은 <빅카인즈> 검색이 가능한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5개 분야 중에서 전문지를 제외한 4개 분야를 포함했다.²⁾ 추출한 언론사 뉴스를 대상으로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언론사 보도 모니터 분석 기간은 2022년 2월 2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기간은 이보다 짧았지만(3월 4일~13일),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막식 일주일 전인 2월 25일부터 분석을 시작했고 폐막식 이후 선수단이 귀국할 때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언론사(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로 구분)의 약 6,500만 건 뉴스 콘텐츠를 빅데이터 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 전문지는 디지털타임스와 전자신문 등 IT 분야 언론사로 이번 모니터 분석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 표 1 〉 분석대상 언론사 개요

구분	언론사
전국 일간지 (11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 일간지 (28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5개)	KBS, MBC, OBS, SBS, YTN

분석 대상 언론사는 전국 일간지 11개, 경제지 8개, 지역 일간지 28개, 방송사 5개 등 총 52개 언론사이다. 그 결과 해당 언론사의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관련 기사는 206건이 추출되었다.

Ⅲ. 모니터 분석

1. 포털

먼저, 포털 사이트의 동계패럴림픽 관련 새로운 시도를 살펴보았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는 이번 모니터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아침에 3/4이 포털뉴스를 접속하고 1일 누계 8,0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진 포털뉴스에서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았다. 지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에서 포털뉴스는 별도의 특집 페이지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 모니터 분석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많은 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했음에도 국내 정치 뉴스와 코로나19 뉴스, 인기 스포츠에 밀려 조회 수는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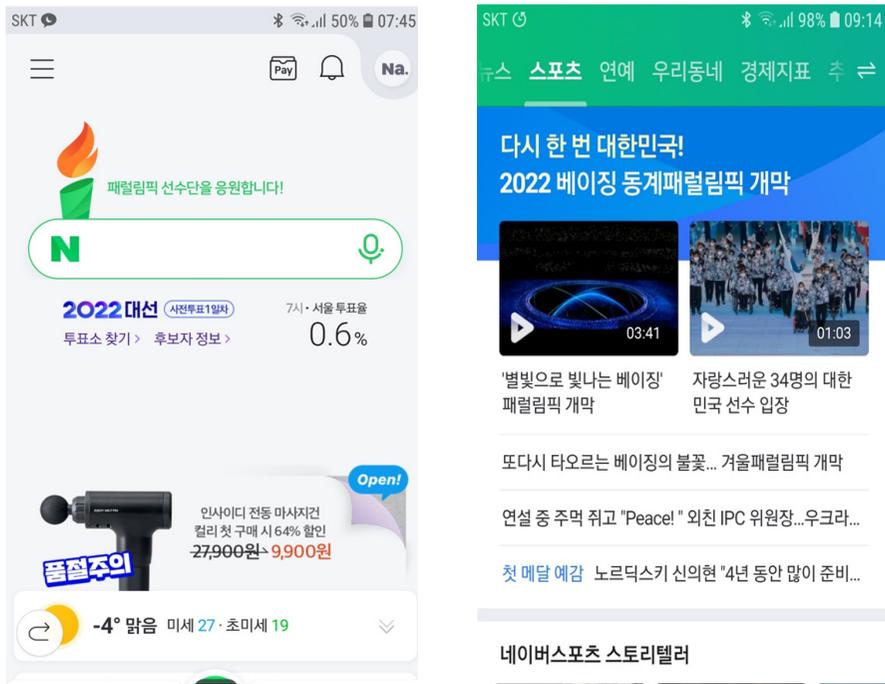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사 뉴스를 배열하는 것과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카카오TV와 네이버TV를 통해 중계했다. 카카오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요 포털사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포털에서는 실시간 중계와 속보 등을 통해 방송과 신문사에 비해 신속한 패럴림픽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목도가 높았던 것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서의 패럴림픽 디자인 적용이었다. 이는 과거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 진행되었던 이벤트인데,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전통으로 이어갔다. 올림픽 기간만이 아니라 패럴림픽 기간에 PC와 스마트용 포털 메인 화면에 NAVER와 DAUM 이름의 패럴림픽 디자인을 부착하고, 검색창에 별도 정보제공을 했다. 이러한 메인 화면의 디자인 변경은 이용자들에게 패럴림픽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뉴스와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국경일, 패럴림픽을 비롯해 주요 스포츠 경기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에 메인 화면의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미를 알리는 긍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개막식과 폐막식 일에는 특별히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패럴림픽 관련 정보를 배치하는 등 과거보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도쿄 하계패럴림픽에 이어 별도로 패럴림픽 관련 정보가 스포츠면의 전면에 배치되어 장애인 체육과 패럴림픽의 의미와 정보를 이용자들인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도쿄 하계패럴림픽에 이어 메인 화면의 뉴스 다음 화면인 스포츠면 가장 상단에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개막”등의 별도 부제를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했다.

〈 그림 1 〉 〈네이버〉 스마트폰 메인화면 네이밍과 스포츠면



포털 운영사들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포털뉴스에서 동계패럴림픽 정보를 전달하면서 의미 있는 메인 화면 디자인과 관련 뉴스 제공을 통해 공론장과 여론 환기 기능을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개회식과 폐회식 당일에는 〈네이버〉와 〈다음〉의 네이밍 디자인 변경과 특별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편집구성을 통해 소외되었던 장애인 체육과 복지, 다양한 인간 스토리 등에 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자칫 다른 뉴스에 묻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포털뉴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패럴림픽의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실제 국내적으로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치고,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포털뉴스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뉴스 공론장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2. 뉴스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 보고서에서 뉴스 빅데이터는 생산된 뉴스 건수의 양적인 분석과 연관어 검색 그리고 주요 뉴스의 내용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첫째 영역은 전반적인 동계패럴림픽 기간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의 기술적 통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영역은 일별 뉴스 생산 트렌드 파악을 통해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언제 정점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진 주요 키워드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언론사 뉴스의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분석 대상 기간 206건의 뉴스 중에서 언론사별로 다양한 뉴스가 생산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국 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지, 지역 일간지 등이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생산했다.

〈 표 2 〉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상위 뉴스 생산 언론사

순위	전국 일간지	뉴스	순위	경제지	뉴스
1	조선일보	33	1	아주경제	7
2	한국일보	16	2	헤럴드경제	6
3	국민일보	15	3	아시아경제	5
3	서울신문	15	3	한국경제	5
5	세계일보	13	5	머니투데이	4
순위	방송사	뉴스	순위	지역 일간지	뉴스
1	YTN	11	1	충부일보	12
2	KBS	3	2	경인일보	10
			3	전남일보	5
			4	강원도민일보	4

첫째, 전국 일간지 중에서 분석 기간 동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많이 생산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3건의 뉴스를 생산하여 다른 일간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2위인 한국일보가 16건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뉴스가

작성되었다. 그다음으로 뉴스를 많은 생산한 곳은 한국일보 16건, 국민일보 15건, 서울신문 15건, 세계일보 13건의 순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러시아 선수단 퇴출 문제 등이 화제가 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등이 결합하면서 관련 뉴스가 많이 생산되었다.

둘째, 경제지는 일간지보다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가 많지 않았다. 아주경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헤럴드경제가 6건이었고 그 뒤를 아시아경제와 한국경제가 5건, 머니투데이가 4건으로 이었다. 전국 일간지의 뉴스 생산량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은 경제지의 동계패럴림픽에 관한 관심이 낮았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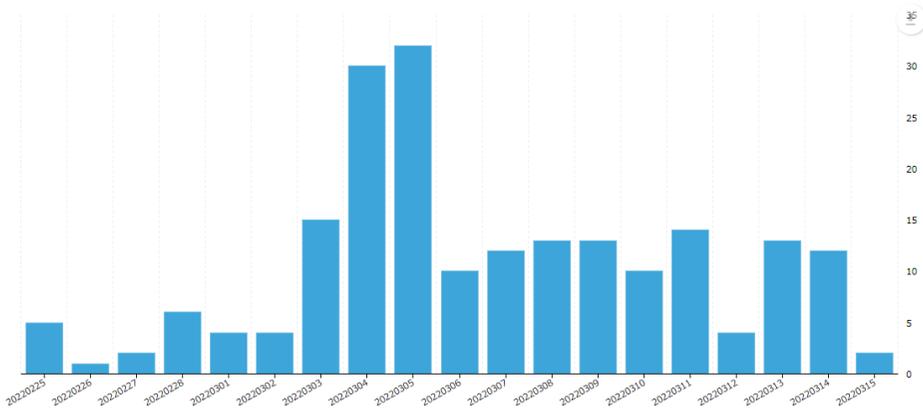
셋째, 방송사는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2020년 도쿄 하계패럴림픽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역시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뉴스가 많았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가 많다보니 방송사에서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 생산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YTN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고, KBS는 3건의 뉴스가 생산되었다.

넷째, 지역 일간지의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도 과거(2020년 도쿄 하계패럴림픽)보다는 줄었다. 역시 국내외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언론사의 관심이 동계패럴림픽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인상이 있다.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중부일보가 12건으로 많았다. 그리고 그 뒤를 경인일보가 10건, 전남일보가 5건, 강원도민일보가 4건의 순이었다. 강원도민일보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일간지는 뉴스 생산 수가 매우 적었다.

마지막으로,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생산한 곳도 있었지만, 분석 대상 기간 1건의 뉴스도 생산하지 않은 언론사도 많았다. 당시 아무리 국내외 정치적 이슈가 많았다고 참작하더라도 패럴림픽의 진행 과정이나 개폐회식이 진행되었음에도 언론사가 뉴스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 일간지가 1개사, 경제지 1개사, 방송사 3개사, 그리고 지역 일간지는 16개가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1건도 생산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방송사이다. 주요 방송사들이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1건도 생산하지 않아 언론이 가지는 여론 환기 기능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한 영역은 일별 뉴스 생산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렌드는 검색한 키워드 “동계 패럴림픽”이 포함된 뉴스 건수를 일간/주간/월간/연간 그래프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일별 뉴스 생산 트렌드



분석 결과 전체 206건의 뉴스 중에서 개막식을 전후한 기간에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막 한 주일 전부터 관련 뉴스가 5건이나 되어 과거에 비해 패럴림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개막식 이전에도 선수단 구성과 사전 뉴스 등이 언론사에서 제공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동계패럴림픽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진 것은 개막식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체 206건 중에서 3월 3일 15건, 3월 4일 30건, 5일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회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매일 10건 이상의 뉴스가 제공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대회 기간 10~14건 등 꾸준히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는 IPC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출전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개막식 이전부터 전 세계의 여론이 집중되어 이 분위기도 한국언론의 뉴스 생산에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3월 5일에 갑자기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가 증가하는데, 여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외부 정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언론사 뉴스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막식 바로 이후인 3월 5일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가 24건이나 등장했다. 단순히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가 증가했다면 의미 있었겠지만, 외적인 미사일 실험이 북한과 중국 관계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분석한 것은 연관어 분석 결과 워드 맵(map)이다. 연관어 분석은 206건의 뉴스를 추출하여 검색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화면에서는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뉴스와의 연관성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그림 3 〉 연관어 분석 결과 워드 맵

분석 결과, 가장 연관어 분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의현” 선수였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7.5km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그리고 15k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신의현 선수가 이번에도 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많은 언론 뉴스가 생산되었다. 가장 많은 연관어 검색에서 거론되었다. 특히 지난 대회 성적이 오버랩되면서 다수의 언론사 뉴스가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뉴스로 제공하였다. 신의현 선수는 이번에는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계패럴림픽 선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으로 연관어 분석에서 많이 드러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선수단”, “러시아” 등의 연관어까지 포함하면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이슈였다. 동계패럴림픽 기간 바로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한국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뉴스가 제공되면서 동계패럴림픽 기간에도 연일 화제가 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노력과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단의 퇴출 결정 과정에서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이번 동계패럴림픽 최대의 이슈였음을 확인해 준다.

이상 분석을 통해서 한국언론에서 나타난 동계패럴림픽 뉴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6건의 뉴스 중에서 몇몇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세부적으로 기사 유형별로 살펴보았는데 앞서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방송사 중에서 뉴스는 정보 전달형으로 제공되었지만, 언론사 사설은 1건도 없었다. 이는 여전히 국내 언론사에서 동계패럴림픽에 관한 관심보다는 당시 선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뉴스 생산이 집중되면서 사설이나 논평 기사는 없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는 과거와 다른 현상이 발견된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로 보이는데 주요 언론사의 장애인과 패럴림픽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뉴스 보도로 나타난 것이다. 동계패럴림픽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기사가 다수 발견된 점은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조선일보> 3월 15일자, “장애와 편견 뛰어넘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기사에서는 동계패럴림픽 보도 속의 ‘차별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있는 뉴스였다. 단지 동계패럴림픽 소식이나 정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애의 의미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뉴스가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폐막된 이후 후속보도 형태로 기획되었다. 특히 언론 스스로가 언론 보도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을 제기했다.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제시한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시각, 청수, 절단 장애 등을 이겨낸 선수 1,500여 명이 참가”라는 표현도 장애를 극복 대상으로 보는 대표적 차별적 표현으로 지적하고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심층 보도였다.

셋째,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 언론은 전통적인 패럴림픽의 가치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하는 뉴스가 많았다. 역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평화와 연관된 뉴스의 양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매일경제> 3월 11일자 “인류애는 전쟁을 이긴다”기사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선전을 보도하면서 평화와 반전의 의미를 환기하는 뉴스였다. 특히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이념을 잘 제시했다.

IV. 언론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이번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대선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런 타인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요한 국내외적인 사건으로 인해 동계패럴림픽 연관 뉴스가 많아졌다는 역설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의 국민적 관심사를 높이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전쟁이나 미사일, 코로나19와 연관된 뉴스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언론 뉴스가 많았다. 그리고 방송사들의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관련 뉴스가 매우 적었다. 물론 일부 종목의 TV중계나 보도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뉴스차원의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패럴림픽 뉴스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물론 스포츠뉴스 시간에 별도로 소개가 되었지만, 종합뉴스 등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의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도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언론사들이 단순히 순위 경쟁이나 매달 색깔, 인간 드라마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 전반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과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평화 정신을 부각한 뉴스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동안 국내 언론사 뉴스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포털뉴스의 새로운 시도와

주요 언론사의 신선한 접근 등은 앞으로 패럴림픽 기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기에도 다루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다.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치르면서 언론이 교육과 사회적 여론 형성,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된 경험이 있다. 당시는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큰 노력이 있어서인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었다. 실제 국내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패럴림픽의 4대 가치인 ‘용기, 투지, 감화, 평등’,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언론의 노력도 있었다.

이번 국내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는 외부조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과거보다는 언론사 뉴스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직은 패럴림픽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와 기사량, 심층 취재 등은 아쉬움이 남지만 작은 변화의 움직임도 확인했다. 이런 변화가 다음 패럴림픽에서는 더욱 질 좋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꽃피우길 기대해 본다.

이동의 역설을 끝낼 시대는 도래할까?

-장애인단체 시위와 장애인이동권-

김 주 현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I. 들어가며

승차(乘車)

김 주 현

장애인 투쟁의 깃발은
삼각지의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두 눈에 흐르는 빛이
그득한 결의에 매서워라.

콩나물 시루마다 인파로 북적이는 아침
들어선 열차 막아서고 바닥에 내려앉는데,

축 처진 몸뚱아리 바닥을 쓸어내고
온 마음 집어삼키는 욕설과 저주의 파도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천장에 붙은 전등 불빛에 모도우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욕설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우리도 지각에 맘줄이는 출근 시간 되고파서
장애인 투쟁의 깃발은 삼각지의 나빌레라.

시인 조지훈의 ‘승무(僧舞)’를 패러디해 지어본 자작시다. 장애인 권리에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매일 출근 시간 릴레이 삭발 및 지하철 안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가는 장애인 시위를 보며, 삭발한 장애인이 지하철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이 처절하다 못해 스님들의 춤사위처럼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어봤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기획모니터 주제가 ‘장애인단체 시위와 장애인 이동권’이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연착시위가 격화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리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을 연착시키는 시위를 강행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향후 장애인 운동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모니터링 기간(2022.01.01.~2022.03.08.)이 올해 초부터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로, 지하철 시위가 시작된 작년 12월 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시위에 대한 공개비판으로 인해 본격화된 장애인 혐오의 확산, 그리고 이후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2차에 걸친 TV토론 과정에서 보인 언론의 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담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

향후 이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이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여론과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화하는지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는 우선 주어진 기간의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유력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의 태도 변화, 그리고 여론의 흐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부족하나마 이야기해보려 한다.

II. 본론

1. 기사량 분석

가. 시위 관련 기사, 일반 이동권 관련 기사의 2배 ↑

아래의 표와 같이 빅카인즈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10개 종합일간지, 8개 경제지, 29개 지역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353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표 1 ‘장애인 이동권’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기사 내용	전체	이동권 시위 관련	시위 외의 이동권 관련	다른 주제에 단순 언급
건수(건)	353	155	72	126
비율(%)	100	43.9	20.4	35.7

검색된 353개의 기사를 이동권을 메인 주제로 다룬 기사와 다른 주제의 기사에서 단순 언급된 기사로 분류하고, 메인 주제로 다룬 기사는 다시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 관련 기사와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로 분류해 보았다.

전장연 이동권 시위 관련한 기사는 전체 검색 기사의 절반에 이르는 4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이동권을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기사들만 고려하면 이동권 시위 관련 기사가 그 외 이동권 주제의 기사의 2배가 넘는다.

이는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가 이동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전장면 시위에 대한 긍·부정 기사 비율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기사들을 다시 시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와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 중립적으로 다룬 기사로 분류해 보았다. 긍정적인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제도의 현황,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정책적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나 칼럼, 논평, 기고 등을 포함하였다.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목적은 다루지 않고,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었다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부각한 단순 사실 보도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장하여 일부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인터뷰해 그것을 크게 부각한 심층 기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시위의 목적이나 시위로 인한 불편 등의 가치에 대해 동등하게 다루거나 가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한 기사를 중립적인 기사로 분류하였다.

〈표2 ‘이동권’ 관련 기사의 긍정·부정 비율〉

	전체	긍정	중립	부정
건수(건)	155	45	49	61
비율(%)	100	29.0	31.6	39.4

분석 결과, 긍정:중립:부정 기사의 비율이 대략 3:3:4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기사들은 극소수 심층기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보도들이었고, 긍정적인 기사들은 심층취재, 사실, 논평, 기고 등 심층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현실이나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나,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외에는 구체적인 현실이나 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언론의 태도 변화를 가져온 ‘마지막 1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분석해보면 언론의 태도 변화가 확인되는 시점이 존재한다. 바로 2월 21일 치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1분 발언’을 전후해서다.

심상정 후보는 해당 발언에서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이동권 예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있다.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 못하는 정치권에 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장애인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후 23일 심상정 후보는 시위 현장을 찾아 장애인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전장연은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표3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1분 발언 전후의 이동권 시위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

시기	1분 발언 이전 (1/1~2/21, 52일)		1분 발언 이후 (2/22~3/8, 15일)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전체	88	100	67	100
긍정	26	29.6	19	28.4
중립	14	15.9	35	52.2
부정	48	54.5	13	19.4

먼저 ‘1분 발언’을 전후한 기사량을 분석해보면, 1분 발언 이전에는 52일간 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1.7건의 기사가 다뤄진 반면, 이후 15일간은 67건으로 하루 평균 약 4.5건의 기사가 다뤄져 전체 기사량만 해도 약 2.8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긍·부정의 태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전체 기사의 29.6%에서 1.2% 줄어든 28.4%로 큰 변화가 없던 반면, 전체 기사의 15.9%에 불과했던 중립적인 기사 비율은 절반이 넘는 52.2%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반대로 전체 기사의 절반이 넘는 54.5%에 달하던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은 19.4%로 약 1/3로 줄어들었다.

전장연 시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표명한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중립적인 기사로 분류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언론의 보도양상이 1분 발언 이후로 긍정적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이동권 시위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며 이 시위를 지지하는 심층기사나 사설, 논평 등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도 이 1분 발언 이후다. 앞서 다른 주제의 기사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언급된 126건의 기사 중 대선 관련 기사가 70건인데 이 중 46건이 이 1분 발언 이후에 검색된 기사인 점 또한 이 발언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으나 당시 지지율 3%대에 불과한 군소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선후보의 자격으로 했던 1분이라는 짧은 발언의 파급력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기사 내용 분석 : 이동의 역설

기사량 분석을 통해 유력 정치인 한 명의 발언이 언론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또 여론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이동권 시위에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 각 1건을 선정해 기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보겠다.

가. 긍정적 기사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이동의 명령, 이동의 권리 (한겨레 2022.2.24.)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배정과 실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은 왜 비난을 받았는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오르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하자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던 시민들이 화를 냈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직장에 지각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계에 지장이 생긴 경우가 있었을 터이다. 계속된 지하철 시위에 격분한 어떤 시민은 시위를 주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장애인들에게 그 어떤 절박한 사정과 요구가 있다고 해도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이동하는 것, 특히 빠르고 멀리 이동하는 것은 곧 진보를 뜻한다. 이동은 자아실현, 경제성장, 사회발전의 기초이자 결과로 간주된다. 사람과 물자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것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임무이고, 우리는 이러한 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사회가 설정한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는 사람은 나태하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된다. 어떤 이유로든 이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의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 출근길 시위 현장이 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타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인들은 이중의 걸림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 사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이동을 늦추거나 막는 것은 모두 죄악이고 어떻게든 제거되어야 한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과 그의 동료들은 석탄의 이동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석탄의 이동은 계속되어야 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지하철을 탄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고장을 처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선로에 들어가 수리를 하다가 열차에 치이는 위험이 있더라도 스크린도어는 언제나 차질 없이 열려야 하고 지하철의 이동은 계속되어야 했다.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은 거대한 이동 시스템에 난 작은 구멍(석탄 컨베이어 점검구와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몸을 들이밀어 시스템을 손보다가 절대 멈추지 않는 시스템에 치였다.

사람이 죽어 나가더라도 계속 움직일 것이 분명한 지하철의 출입문 사이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몸을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으며 무엇을 목격했을까. 화력발전소의 김용균과 지하철역의 김군은 이동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일에 동원되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아예 그 시스템에 편입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로 들어갔다. 빠르게 달리던 지하철이 잠시 느려지자 누가 열차에 올라 있고 누가 열차에 오를 수조차 없는지 드러났다.

시위 진입 경찰이 이들을 휠체어와 함께 들어올려 지하철 밖으로 빼낼 때 장애인들은 마치 발전소 안 석탄 부스러기나 지하철 승강장의 고장 난 스크린도어처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당했다.

하나의 거대한 이동 시스템이 된 이 사회는 실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신성한 이동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힘없는 젊은이들이 투입되고, 이동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장애인은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거부당하고 심지어 시스템의 휘방꾼이라고 비난받는다. 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들과 이동의 장애물이 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처지다. 어쩌다 시스템의 이동이 지체되면 비난의 눈초리는 지금껏 시스템을 지켜왔거나 그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이들에게 향한다. 왜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희생과 배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따지는 법은 좀처럼 없다. 다들 각자 움직이느라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화나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 욕 100번 하시면 한번만이라도 정부와 대통령 후보에게도 해달라”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말은 장애인 시위로 인한 지하철 지연 사태에서 우리의 눈초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있다. 이동하라는 명령, 이동을 유지하라는 명령만이 가득한 가운데 함께 이동할 권리도 생각해보자는 외침이다.

이동권 시위를 지지하는 여러 칼럼들 중 가장 공감이 가는 기사다. 장애인 운동이나 인권운동 진영의 활동가, 소위 공공연하게 ‘우리 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쪽 진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쓴 칼럼임에도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칼럼에 현대사회에서 이동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신성한 명령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필자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성한 이동의 명령으로 포장된 죽음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이어가지 않으면 무너져버린다는 믿음에 사로잡힌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동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이 이동의 명령 불복에 성공해본 적이 없고, 명령 불복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매 순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입장의 기사에서조차,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전인류적인 집단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동의 명령'과 '이동의 권리'가 격돌하는 '이동의 역설'은 반복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우리가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할 전 인류적인 집단각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사 하나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나. 부정적 기사

"할머니 임종 보러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머니투데이 2022.02.23.)

박효주|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중 한 남성이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고 소리치자 "버스 타고 가라"고 답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 전장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전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도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뒤 시위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 최대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때 한 남성이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쩔 것이냐",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냐"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다급한 상황에서 이들 시위로 열차 출발이 지연되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남성은 비속어까지 써가며 항의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소속 여성은 "버스 타고 가세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에도 청년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성은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답한 뒤 시위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남의 아픔은 공감 못 하면서 자기네들 아픔 공감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냐", "마음마저 장애가 된 것이냐", "헛웃음만 나온다", "이건 아니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경멸로 바뀌려 한다", "나 같으면 못 참고 때렸을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21일째 이어오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단체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언급한 이후 이날 출근 선전전에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오늘로 멈추겠다"고 밝혔다.

부정적 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소위 ‘할머니 임종’ 유튜브 방송 인용 기사다. 인용된 영상은 해당 기사가 작성되기 2주 전인 2월 9일에 찍힌 영상으로 전장연은 해당 영상이 전체 상황의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전체 상황이 찍힌 영상에는 “버스 타고 가라” 했던 전장연 관계자가 이동 수단이 없어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울먹이며 이야기하면서 안타깝지만 시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역설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에도 기사는 편집된 영상만을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 영상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들을 소개하며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2주나 지난 시점에, 그것도 심상정 후보의 현장 방문 이후 시위를 중단하기로 한 날, 다시 이 영상을 인용해 이런 기사를 작성하고, 이것이 게재된 이유는 뭘까?

같은 시기에 전장연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배포한 대응 문건에 활용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문건을 제작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왜곡된 영상만을 인용해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써야만 했을까?

장애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왜 저런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들에 대한 혐오에 편승해 기사의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주의 관심을 끌어 회사(언론사)를 유지하게 하는 ‘이동의 명령’에 충실한 기자의 성실함의 발로가 아닐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건 상관없이 조회수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동’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이동의 역설이 서글플 따름이다.

Ⅲ. 나가며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고,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 장애인들의 권리에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전장연의 투쟁방식에 대해 비문명적이라 공개적, 지속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비판은 비록 중편이기는 하지만 전장연과의 2차례에 걸친 TV토론을 성사시키며 이동권을 비롯해 무관심에 가려져 있던 장애인 권리 이슈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소수자 혐오세력에 강력한 논리적 심리적 근거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공공연하고 조직적인 혐오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던 이동권 시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 여론에 힘이 실려 가고 있다.

혐오세력이 조직화되고 강력해져감에도 새정부와 여당은 장애인의 권리에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어 전장연의 시위 또한 삭발과 오체투지, 사다리와 쇠사슬을 이용한 지하철 연착시위에 이르는 등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결국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동권 시위에 동참하는 장애인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범죄자도 아닌데 시민에 대한 과도한 협박이 아니냐, 공권력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비판에 신경쓰지 않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보아 하니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국민 발 묶어 의사 관철하는 행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신성하고 준엄한 이동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동을 막는 불순물은 ‘누군가 죽어나갈 지라도’ 과감하게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의 명령에 순응하고 신성한 이동이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자들을 혐오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행복한 시대가 도래했다. 반면 그런 신성한 이동에서 배제되고 그 이동을 막아서는 ‘불순물’들에게는 암흑한 세월이다.

이 자본주의의 ‘이동의 역설’을 끝낼 시대는 과연 도래할까?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장애인 정책 기획모니터

- 대통령 선거 속 사라진 장애인 정책 -

백 정 연

소소한 소통 대표

I. 들어가며

성인이 되면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성별, 장애 유무, 학벌,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한 표가 주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회적 이미지, 도덕성, 역량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의 공약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 기준에서 저마다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그중 유권자로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정책선거다. 정책선거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장애인 정책이 있는지, 그 정책은 바람직한 내용인지 살펴본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특히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욕구 중심의 충분한 장애인 정책이 존재할 때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정책리포트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킬까?>를 발표했다.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19대 대통령 장애인공약은 얼마큼 이행되었는지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¹⁾의 장애인 정책을 <표1>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별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의석을 가진 4명의 후보 공약을 소개하였으며, 2022.2.16.기준 각 후보 발언, 발표 등을 근거로 일자순으로 작성한 자료임. 안철수 후보는 후보에서 사퇴하여, 본 모니터의 공약 비교표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1.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 변화〉

구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 연금지급 / 장애수당 70% 까지 단계 확대	-	-
고용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장애인 관련 당사자 채용	4차 산업 인재 육성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AI 알고리즘 활용 예방책 마련 / 발달 지연·장애 조기개입센터 설치/ 발달장애 영유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 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지원	저상버스, 시외 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저상 버스화 100% / 장애인 콜택시 100명당 1대로 증차 / 시각장애 인 이동권 강화/ 택시호출 서비스앱 개발	시내버스 대·폐차 100%,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 버스화 / 교통 이동지원센터 설치
주거	장애인 독립·자립 지원 지원주택 제공	-	-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 적용 및 민간 확대 / 공공부문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편의시설 비율 확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일부 수정)

또한 2022년 대선장애인연대²⁾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장애인 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언론이 대통령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과 정책을 기사로 다룬다. 대통령이 가지는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후보자의 개인 이미지나 사건·사고 보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집중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 속, 또는 언론 속 장애인 정책은 어떠한지 언론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

언론 모니터링은 2021년 11월~2022년 3월³⁾, 총 5개월 동안 10개 종합 일간지 및 8개 경제지, 28개 지역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각 매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목과 내용에 대통령 선거 장애인, 장애정책, 장애인정책, 장애인 공약 등 관련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138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은 대통령 후보자가 가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닌, 투표 절차에 있어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지적하거나 필요성을 다루는 기사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어떤 선거 때 보다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림 투표용지나 쉬운 공보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환경과 서비스 등 참정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모니터링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37개 단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성한 연대 모임

3)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 시기가 종료되는 기간까지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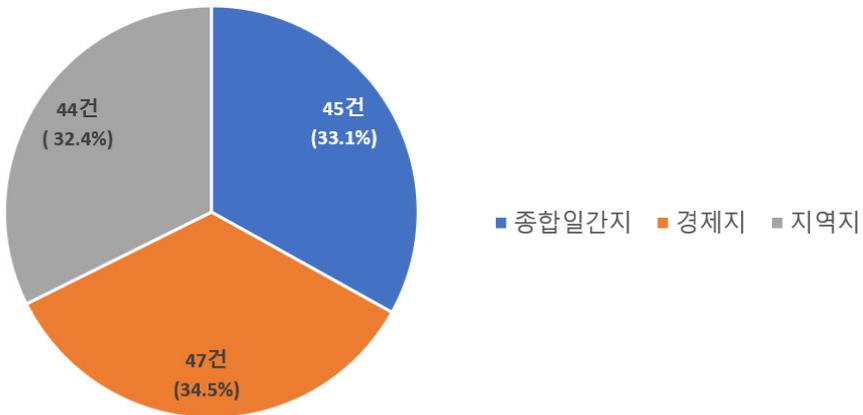
1. 분석 대상

- 종합 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총 10개)
- 경제지 :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총 8개)
- 지역지 :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경남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전북도민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총 28개)

2. 분석 결과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총 56개 신문사의 보도 횟수 136건을 비교한 <그림 1>을 보면, 종합일간지 45건(32.8%), 경제지 47건(35%), 지역지 44건(32.2%)로 신문사 분류별 보도 횟수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1. '대통령 선거와 장애인 정책'관련 매체별 보도 횟수>



각 신문사별 보도 건수를 보면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는 아주경제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최소 1건 이상의 보도를 하였으나, 지역지의 경우 관련 보도 자체가 없는 신문사도 존재했다. 경제지의 경우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보도 건수가 각각 20건,

14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장애인 정책, 공약과 관련된 기사보다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투표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투표 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표 2. 신문사별 보도 건수〉

구분	신문사명				
종합일간지 (45건)	경향신문 (5건)	국민일보 (1건)	동아일보 (6건)	문화일보 (1건)	서울신문 (2건)
	세계일보 (7건)	조선일보 (7건)	중앙일보 (4건)	한겨레 (6건)	한국일보 (6건)
경제지 (47건)	머니투데이 (6건)	매일경제 (20건)	서울경제 (1건)	아시아경제 (2건)	아주경제 (없음)
	파이낸셜뉴스 (2건)	한국경제 (14건)	헤럴드경제 (2건)		
지역지 (44건)	강원도민일보 (1건)	경기일보 (없음)	기호일보 (3건)	중부일보 (6건)	동양일보 (없음)
	중도일보 (없음)	중부매일신문 (2건)	충북일보 (1건)	충청매일 (3건)	충청투데이 (없음)
	경남도민일보 (없음)	경남일보 (7건)	경북매일 (2건)	경북일보 (3건)	경상일보 (없음)
	국제신문 (없음)	대구일보 (없음)	영남일보 (1건)	울산매일신문 (1건)	전북도민일보 (없음)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1건)	남도일보 (3건)	무등일보 (없음)	전남매일 (없음)
	전남일보	제민일보 (6건)	한라일보 (4건)		

매체별 기사 유형은 어떠한지 〈표3〉과 같이 ①일반 보도, ②칼럼/사설/기고, ③기획기사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기사 중 일반 보도 기사가 113건(83.1%)으로 대부분 단순 보도의 기사가 많았으며, 기획 기사가 23건(16.9%)을 차지했다. 칼럼·사설·기고는 단 1건도 없어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나 논의 또한 미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기획기사는 언론사나 기자가 문제나 이슈를 발견하고 취재를 통하여 작성한 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매체별 기사 유형 분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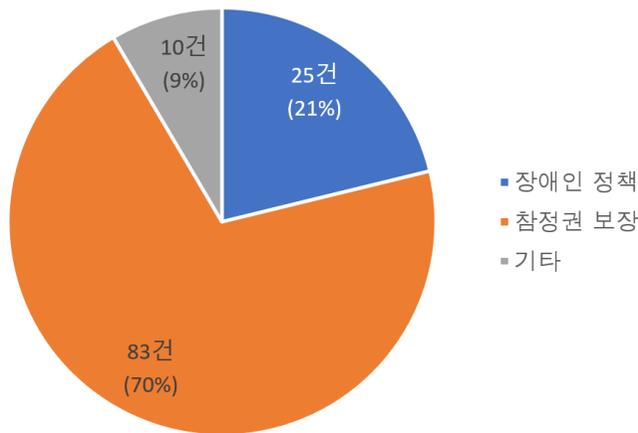
매체		일반 보도	칼럼/사설/기고	기획 기사	합계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5	-	-	5
	국민일보	1	-	-	1
	동아일보	6	-	-	6
	문화일보	1	-	-	1
	서울신문	2	-	-	2
	세계일보	6	-	1	7
	조선일보	5	-	2	7
	중앙일보	3	-	1	4
	한겨레	4	-	2	6
	한국일보	5	-	1	5
	소계	38	-	7	45
경제지	머니투데이	2	-	4	6
	매일경제	20	-	-	20
	서울경제	1	-	-	1
	아시아경제	1	-	1	2
	아주경제	-	-	-	-
	파이낸셜뉴스	-	-	2	2
	한국경제	14	-	-	14
	헤럴드경제	-	-	2	2
	소계	35	-	12	47
지역지	40	-	4	44	
합계	113	-	23	136	

가. 일반 보도

일반 보도의 세부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25건(21%)이었고, 투표 절차 및 투표 행위 지원에 있어서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83건(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10건(9%)으로 선거 관련 공약 연대, 지역 선대위 소식 등의 기사였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일반 보도 보다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아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펼친 다양한 활동이 기사를 통해 많이 다뤄진 영향도 존재한다.

<그림 2. 일반 보도 세부 주제 분석>



나. 기획 기사

기획기사는 종합일건지 7건, 경제지 7건, 지역지 4건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와 기사제목은 <표 3>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매체별 세부 신문사를 살펴보면, 특정 신문사에 집중되어 기획 기사가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역지 중 유일하게 기획 기사를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획 기사 보도 리스트〉

구분	신문사명	기사 제목
종합일간지(7건)	세계일보	글자 읽기 힘들어 아무 곳이나 도장 ‘꼭’... 멀고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 [뉴스 인사이트]
	조선일보	“철폐·개편... 공약 속 어려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조선일보	대선 후보 공약집에 엉터리 점자... 참정권 사각지대 놓인 ‘50만 시각·발달장애인’
	중앙일보	“내겐 빈종이 온거죠” 선거 공보물 받은 시각장애인의 한탄
	한겨레	대선 D-100...발달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이유는
	한겨레	“공약 모호해 힘들었죠...‘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제작 분투기”
	한국일보	“소수자는 정치 효능감 느낄 수 없는 대선”... 정치인은 차별 문제의식 있어야
경제지 (7건)	머니투데이	“우리도 대통령 뽑고 싶다” 발달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머니투데이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 싶다”...투표보조 뒤통자 ‘논란’
	머니투데이	‘대선 D-50’ 투표장 가기가 두려운 발달장애인들
	머니투데이	“되찾은 소중한 한표”...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동행해보니
	아시아경제	[르포] “장애인도 투표 쉽게 하면 안 될까요”...투표소 함께 가보니
	헤럴드경제	“대선 참정권행사 쉽게 그림투표지 제공을”
	헤럴드경제	장애인 유권자들 “표 행사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지역지 (4건)	경남도민일보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미흡’
	경남도민일보	발달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어려운 공보물
	경남도민일보	발달장애인 참정권, 현장에서는 외면
	경남도민일보	승강기 없고 화장실 못 쓰고... 험난한 장애인 투표

이중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룬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의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미흡’”이라는 기사가 유일하다. 지역지에서 장애인 정책의 공약에 대해 다룬 기획 기사로 유일하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재연 5명 후보의 공약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으며,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3. 경남도민일보 기사 캡처 이미지 (일부)〉

HOME > 정치·행정 > 선거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미흡'

8 박신 기자 | 2022.02.24 승인

대선후보 저상버스 확대 약속
자립 공감·지원은 제각각 차이
장애인단체 "기존 보완 수준"
예산 등 이행 방안 미제시 비판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다.' 이 말대로라면 장애인 복지는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은 늘 찬반 신세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21년째 되지 않고, 탈시설은 걸음마를 댄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장애계 외침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얼마나 가닿았을까.

★ 대선 후보 장애인 복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김재연 진보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맞춰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시내 저상버스 비율 50%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증차(100명당 1대 수준) - 택시 호출 서비스 앱 중증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차령 무료 시내버스 바꿀 때 100% 저상버스로 교체 -시외·마을버스에 저상버스 50% 도입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약자 계정 만들어 20조 확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교통 바꾸쳐 지급 -BF제도 인증 의무기관 BF 인증 100% 달성 추진	-중소도시지역에 저상버스 우선 투입 -장애인콜택시 공사로 개편 -휠체어 차량 법정대수 100명당 1대 확대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정부 '탈시설 로드맵' 계속 -공공주택·지원 서비스 결합된 지원주택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 위원회 설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10년 내 장애인 완전한 탈시설 추진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 완화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자립 지원계획 수립 -10년 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신규 시설 설치 금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하였고,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언론 보도 후 실제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선거 때 보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이슈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공보’가 현실로서 보장되는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림 4. 세계일보 캡처 이미지 (일부)〉

세계일보

글자 읽기 힘들어 아무 곳이나 도장 ‘꼭’... 멀고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 [뉴스 인사이드]

난해한 공보물... 글자만 빼곡한 용지
문자 장벽에 생애 첫 투표도 ‘트라우마’

장애인단체 “정보 제대로 제공 못 받아”
이해 쉬운 그림 투표지 제공 요구에도
수년간 제도개선 하지 못하고 제자리

기표 어려움에 공적 조력인 필요 주장
투표권 영향 우려에 수차례 변경·수정
국회서 매뉴얼 아닌 제도화에 나서야

입력 2022-02-03 18:19:07, 수정 2022-02-06 10:17:30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쉽게 해설해주는 책자를 제작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책자 제작의 배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 감수자로 직접 참여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소감을 전하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첼페·개편… 공약 속 어려운 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중앙선관위,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약 쉽게 해설해주는 책자 제작

〈조선일보, 2022.2.16.〉

“선거 때마다 공약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참고서가 있으니 훨씬 쉽겠네요.”

지난 8일 서울 문래동 한 사무실에서는 ‘정책 선거를 부탁해’ 책자 감수회의가 한창이었다. 이 책자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자주 내놓는 공약 내용을 쉽게 해설해주는 일종의 참고서다. ‘첼페’라는 말에 대해 ‘이미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없앨 때는 첼페라는 말을 쓴다’는 식으로 해설이 돼있다. 책자를 살펴보던 발달장애인 김선교(33)씨, 송지연(32)씨는 “평소 어려웠던 경제 용어나 장애인 공약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겠다”며 웃었다. (중략)

선관위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이해를 돕는 책자 제작에 처음 나섰다. 이번에 발간하는 ‘정책선거를 부탁해’ 책자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고, 공보물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쉽게 정리했다. 중앙선관위 이은혜 정당과장은 “단순히 선거 참여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장애인들도 각 후보의 공약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쉬운 10대 공약 사이트를 제작한 기사도 다른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선관위의 책자 제작 기사와 본 기사의 공통점은 단순히 ‘선거를 돕는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필요한 참정권 보장의 방안을 언급하고 대중에게 알렸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바르게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잘못된 편견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하였다.

“공약 모호해 힘들었죠…‘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 제작 분투기”

〈한겨레신문, 2022.3.18.〉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희는 구체적인 방법 중심으로 문장을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대체로 공약이 선언적이다 보니…”(중략)

‘쉬운 10대 공약’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250만개 더 짓겠습니다’로 고치는 식이다. 그는 “수요·공급 같은 함축적이거나 뉴스·보고서에서 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의 언어들을 문장 안에 담아내려 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이 민간에서 주도하다 보니 한계도 존재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쉬운 10대 공약’은 인쇄물이 아닌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로 소소한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만 제공됐다.

제작 시간과 여건의 한계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사퇴)·심상정 후보의 공약만 제공되기도 했다. 백 대표는 “4명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왜 다른 후보들은 없냐’고 많이 물어보셨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쉬운 공보물을 제공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자 발달장애인들은 소소한소통에 “쉬운 10대 공약 덕분에 원하는 투표자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고 전해왔다. (중략)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이야기가 나오면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 백 대표는 말한다. “비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으니 제대로 된 판단은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정보들을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Ⅲ. 나오며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개인의 능력, 재산,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1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러한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 무색하도록 장애인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왔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한 표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현재도 그 차별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곁에 존재하고 있다.

2021년 11월~2022년 3월의 언론 보도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정책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이 얼마나 흐릿한 의미로 함께 하고 있는지 투영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은 수많은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언론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공약이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기사는 매우 부족했다. 오히려 언론은 연일 투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정책과 정치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는 현실은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닌, 정당,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 언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정당은 장애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 정치인으로서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강하고 질게 퍼져나갈 수 있는 도구, 과정, 기법 등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정치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 당사자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해야한다. 단순히 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공약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가 끝나면, 해당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고 평가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과 환류를 거친다면, 선거를 도구 삼아 장애인 정책은 더 발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언론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다수의 강자가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약자의 어려움을 공공문제로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소외된 약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가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칼럼, 기고, 사설 등을 기획·운영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이 주요 핵심 정책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언론사 차원의 기획 기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22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미디어 속 장애(인)

김 헌 식

문화콘텐츠학 박사,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I. 서론

그동안 2022년만큼 장애 관련 영상 콘텐츠가 화제와 이슈를 불러일으킨 적도 드물다.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말아톤’이나 ‘도가니’처럼 개봉 영화 한 편이 주목을 받는 정도였다. 더구나 올해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우선, 상당한 마니아 팬들을 거느린 노회경 작가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장애인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증인’의 문지원 작가 역량이 돋보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우영우 역의 배우를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등극하게 만드는 위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이제 장애인 캐릭터가 흥행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러 이바지와 이슈와 논쟁을 낳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대비되었다. 어쨌든 여러 담론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대중적인 드라마들이 크게 반응을 얻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담론과 이슈를 끌어낼 때 영화계는 크게 화제작이 없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개봉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장애인이 등장했던 영화들이 한동안 부진했던 점을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영화보다는 독립영화계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의미 있는 주제의식과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드라마와 영화 영역에서 장애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 정리한다. 우선 흥행 드라마를 중심으로 특징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영화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되 독립 영화가 중심을 이룬 점을 모니터 했다. 미처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은 화제가 된 이유와 배경을 정리하고자 했다.

II. 본론

1. 드라마

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특징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을 화두 삼아, 한국 사회에 여전한 각종 차별과 편견, 교육·환경문제 등을 촘촘하게 짚어낸 법정·휴먼드라마’¹⁾라는 평가였다.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에서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²⁾을 주었다. ‘장애가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방송 안팎에서 새로운 ‘힐링 드라마’가 탄생했다.’³⁾라고도 했다.

우영우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 캐릭터로 꼽힌다.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공감 가는 메시지,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동 3박자를 모두 갖춘 ‘웰메이드’드라마이며 장애를 유쾌한 모습으로 그려내며 따뜻한 휴먼 법정물이므로 인기를 끌고 있다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머와 로맨스, 출생의 비밀과 권력 싸움, 통쾌한 약자 승리, 자폐인의 진실함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따스함’⁵⁾까지 복합적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초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서번트 신드롬 캐릭터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른 결을 갖게 된다. 우영우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랩 하듯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발랄한 매력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렇게 자폐와 개성을 오가며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다. 놀란 듯이 토끼 눈과 같이 하거나 걸음걸이에 리듬을 살리고 말을 할 때도 특유의 억양을 구사하게 해서⁶⁾ 호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영화 ‘말아톤’(2005)같은 기존의 영화에서 사실적 묘사에만 치중했던 연출 방식과 아예 차원이 달랐다.

1) 월트클래스 ‘우영우’ 17개국서 1위...세계인도 사로잡았다, <한겨레>, 2022.08.01.

2) 미디어 속 발달장애인과 현실의 괴리는...<뉴스클레임> 2022.10.19.

3) 자폐증 편견 깬 ‘우영우’, 세계서 통했다, <스포츠동아>, 2022.07.11.

4) [트렌드이슈] "글로벌 시청자 사로잡은 우영우", <시사캐스트>, 2022.08.08.

5) 너무 뛰어난 ‘천재 우영우’... 전문직 바라는 장애인들에 역차별, <조선일보>, 2022.09.03.

6) ‘우영우’ 돌풍 어디까지...캐릭터·메시지·감동 3박자 ‘시너지’, <연합뉴스>, 2022.07.22.

특히, 작가의 힘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문지원 작가는 자폐성 장애를 지닌 우영우가 변호사 사회에서 세상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⁷⁾는 것이다. 제작진의 노력이 본보기가 되었다.

2) 의미

가) 당당한 정체성

우영우는 드라마에서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각기 다르다. 3화에서는 우영우와는 다른 자폐 스펙트럼 10대가 등장해서 이런 취지를 잘 살려주었다. 장애인 사이에도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점을 잘 형상화했다. 우영우는 극 중에서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 처지에서 자신의 장애를 담담하게 밝히면서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변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한 대사라서 주목을 받았다.

나) 경험적 현실 부각

법률 회사 한바다에 첫 출근 날 우영우는 "특이사항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고 우영우는 덩덤한 표정이었다. 현실의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자궁(自矜) 하는 모습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는 그것에 굴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예컨대, 학창 시절에 당했던 차별에 대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동료 최수연 변호사에게 송무팀 직원 이준호(강태오)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쉽지 않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라고 말하는 대목은 그 고민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에 비장애인 최수연이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라며 소리를 치는 장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우정 어린 진심이 담겨 있게 한다.

7) 대본·연기에 녹아든 진정성, 우영우가 사랑받는 이유, <국제신문>, 2022.07.28.

다) 소신과 공감 유도

순수한 나름의 소신 있게 양심에 따라 변호 활동하는 우영우의 가능성은 비장애인과 공감을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우영우가 양심과 직무 사이에서 고뇌하는데 우영우는 관리상급자 정명석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사회정의에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 비겁한 짓까지 해가며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정명석은 고객의 이익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영우의 현실 감각을 일깨운다.

라) 사회적 공론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관련 정책 아젠다가 부각하기에 이른다. 장애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8월 18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이때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⁸⁾라고 언급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입법적 논의에 대한 학술적 환기도 있었다. 2022년 11월 4일,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창립식을 통해 “매우 낙후된 28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증과 개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충분히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시스템과 치료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⁹⁾ 시민단체를 넘어서 학술단체의 체계적인 접근 활동이 입법 활동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 <컨슈머타임스>, 2022. 08. 19.

9) 28만 발달장애 아동 위해...“'우영우법' 만들겠다”, <의사신문>, 2022.11.06

3) 한계

가) 관계

10화에서 등장한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지적 장애여성 신혜영(오혜수)에 대한 성폭력(준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양정일(이원정) 사건 에피소드는 사랑이 전에 관계 적응과 상호작용 문제가 있었다. 우영우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장애인에게 "나쁜 남자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며, 이를 판단할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지 말라고 한다. 이른바 성적 자기 결정권 관점이다. 이는 비장애인 관점일 수도 있었다.¹⁰⁾ 그런데 해당 에피소드에서 지적 장애인 여성의 어머니가 그악스러운 캐릭터로 등장하며 딸을 대변하고 남성을 신고했으며, 심지어 우영우 변호사를 심하게 모욕까지 한다. 일견 비장애인 남성이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적 수단으로 삼은 면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적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계설정 훈련이 증척된다. 사회적 인간적 관계 훈련관점에서 볼 때 발달장애인과 상호작용 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보호자의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엄마는 집안에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적 관계 경험과 훈련이 없을수록 무조건 잘해주는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주게 되면서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주지 않아 아쉬웠다.¹¹⁾

나) 현실 괴리

여전히 현실의 괴리를 다시금 인식하게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2배가량 높다. 또한, 우영우처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서 9.8%로 낮 비장애인의 경우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 2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38.6%)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22.6%), 중학교(14.6%) 순이었다. 전문대 이상 재학·졸업자는 6.2%, 무학도 8.1%였다.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15.1%이며 전체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41.7%이다.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5명 가운데 1명(20.3%)만 취업

10) 나쁜 남자를 사랑할 권리? 난 '우영우' 생각과 다르다, <오마이뉴스>, 2022.08.03.

11) 우영우의 사랑, 현실은 다르다...“발달장애의 性, 상호작용이 핵심”, <세계일보>, 2022.09.16.

상태였다. 취업한 발달장애인은 낮은 임금(31.8%), 의사소통 어려움(13.7%), 업무 수행 능력 부족(10.8%) 등 어려움을 겪었다.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 이상(22.5%)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최근 3개월간 월평균)은 197만1천 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임금(268만1천 원)의 70% 정도였다. 우영우처럼 대졸 이상 고학력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률은 60.3%로 높은데, 전체인구 중 대졸 이상의 고용률(73.9%)에는 못 미친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드라마 속 우영우는 경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폐에서는 경증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장애가 심한 경우"¹²⁾라고 언급했다. 여성장애인으로 좁혀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발달장애여성은 8만1916명으로 취업자는 1만6328명, 고용률이 19.9%에 불과했다. 전체 장애 인구 고용률은 34.6%이고 발달장애남성 고용률도 33.1%에 비하면 발달장애여성은 더욱 낮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드라마 자체에서 언급하거나 반영한 에피소드가 없어 아쉬웠다. 하지만 우영우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다시금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사회적 관심과 논의에 자극을 준 점이 분명 있다. 사회적 문제 지적도 긍정적 역할 가운데 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통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우영우처럼 고기능 자폐성 장애인이 아닌 당사자가 대부분이다. 우영우에 대한 관심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으로 옮겨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졌으면 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우영우는 장애인 가운데에서 뛰어난 인재다. 하지만, 현실에 없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존재했다. 장애인 중에도 분명 뛰어난 인재가 있을 것이고 비장애인 중에 뛰어난 인재가 영화에 등장할 때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¹³⁾ 타당한 지적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다큐도 아니고 텔레비전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매체별 특징과 이의 효과에 따라 평가할 부분이 분명 있다. 다만, 우영우가 법률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은 친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거꾸로 장애인의 현실을 말해준다. “우영우는 다수 장애 여성과 다른 위치성을 갖고 있고 아빠가 대형로펌 대표의 학교

12) 우영우는 꿈? 장애인 평균 임금, 전체 평균의 70%, <매일신문>, 2022.07.24.

13) 우영우의 사랑, 현실은 다르다...“발달장애의 性, 상호작용이 핵심”, <세계일보>, 2022.09.16.

선배이고, 자신도 학벌 자본을 갖췄으며 현실에서 장애 여성 다수는 취업 등 다양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해도,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¹⁴⁾”는 지적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 조력 제도

장애인이 어려움에 부딪칠 때 더군다나 여유 있는 부모나 혹은 빈곤한 부모조차 없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후속편이 필요해 보였다. 드라마 속에서 형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자폐증 동생이 우영우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었지만, 현실에선 발달장애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대책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6곳에서 상근하고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단 1명뿐으로 이마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편성된 변호사 2명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이 운영 중인 국선 변호인 풀(Pool) 제도를 참조해 발달장애인과 의식 있는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방식 등 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안이 필요했다.¹⁵⁾

나. tvN ‘우리들의 블루스’

1) 특징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많은 등장인물이 각자 사연을 갖고 에피소드를 만들어간다. 장애인 관련 에피소드는 14회와 15회에 걸쳐 들어있다.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장애인을 그려내 호평받았다.¹⁶⁾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영욱(한지민)의 쌍둥이 언니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영희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영희는 실제 다운증후군이 있는,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가 연기했다. 영희는 카페에서 일하고 가족, 지인들과 소통하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삶을 꾸려가는 인물이다.¹⁷⁾

14) TV에 갇힌 ‘우영우’가 현실로 나오려면...장애여성 말하다, 〈한겨레〉, 2022.08.31

15) 미디어 속 발달장애인과 현실의 괴리는...〈뉴스클레임〉 2022.10.19.

16) 학교엔 10만명의 우영우·영희가 있다...비진학·미취업 40% 달해, 〈연합뉴스〉, 2022.07.24.

17) 학교엔 10만 명의 우영우·영희가 있다...비진학·미취업 40% 달해, 〈연합뉴스〉, 2022.07.24.

김규태 감독은 정은혜의 연기에 대해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촬영 횟수가 거듭될수록 너무 잘했다. 연기를 넘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 작업 과정이 저희들에게도 감동이었다”라고 언급했다.¹⁸⁾ 15회 엔딩 속 그림들도 실제 캐리커처 화가인 정은혜가 직접 그렸고 낙관도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또 다른 장애인도 있어 화제가 되었다. 푸름마을 오일장에서 커피를 파는 별이 역의 이소별은 실제 청각장애의 농인 배우였다.¹⁹⁾ 3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고막에 손상을 입게 됐다. 이소별은 “노희경 작가님이 쓰신 별이는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²⁰⁾라고 언급했다.

한편 영희의 동생 영옥은 죄책감과 현실에서 고통받는 보호자다. 언니 영희를 감당할 수 없어 지하철에 버리기도 하고, 시설에 맡긴 채 외면한다. 영옥은 언니의 그림을 보고 무너지고, 드라마는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²¹⁾ 영옥은 장애인 가족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한지민에 따르면 “은혜 배우의 어머니께서 노희경 작가님께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글을 써주셨나요.’²²⁾”라고 언급했다. 당사자의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의미

가) 갈등과 화해 방식

이 드라마의 초점은 갈등 이후 화해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의 관점과 세계관이 드러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14회 '영옥과 정준...그리고 영희'란 주제에서 정준은 이별을 통보한 영옥을 따라가며 대화를 시도하다가 공항까지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영옥(한지민 분)은 쌍둥이 언니 영희(정은혜)였다. 정준을 향해 ‘그럼 그렇지!’ 태도로 “다운증후군에 대해 검색해

18)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장애가 있는 가족들 이야기, 잘 표현해 내고 싶었다”, 〈한국경제 TV〉, 2022.05.31.

19) ‘우영우’→‘메리퀸어’ 화두...다양성 외친 ‘소수자’의 힘, 〈스포츠경향〉, 2022.07.27.

20)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장애가 있는 가족들 이야기, 잘 표현해 내고 싶었다”, 〈한국경제 TV〉, 2022.05.31.

21) [참성단] 영희, 우영우, 이승민, 경인일보, 2022.07.24.

22)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장애 가진 가족들 이야기, 잘 표현해 내고 싶었다”, 〈한국경제 TV〉, 2022.05.31.

보던가”란 말을 남기고 공항을 떠난다. 급히 검색을 해보는 정준(김우빈 분)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언니 영희가 낯설게 느낀 것이다. 당황하는 정준을 보고 영희는 영옥에게 정준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보고 기이하게 쳐다봤기 때문이었다. 만나지 말라고 한다. 영옥도 그런 정준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랫동안의 경험과 상처 때문이었다. 또한, 정준에게 영옥은 이전의 남자들을 거론하며 장애인 언니 때문에 하나같이 자신을 떠나간 점을 강조하며 이별을 종용한다. 하지만, 정준은 그들과 자신은 다르고 영옥은 물론 영희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비장애인 관점에서 놀란 이유를 말하는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다운증후군이 무엇인지 듣지도 보지 못했고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적응해가고 친해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정준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영희와 친하게 되고 마침내 영옥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림을 보게 된다. 이로써 그림을 매개로 서로 간에 틈이 갈라지고 위태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정준을 통해 회복된다.

나) 비장애인의 긍정적 태도

푸름마을 공동작업장에 등장한 나타나는 영옥은 그곳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모아낸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옥이 아니라 영옥의 뒤를 따르던 영희 때문이었다. 이는 사실 정준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 다행히 영옥의 사정을 알던 해녀 삼촌 춘희(고두심 분), 혜자(박지아 분)가 어색해진 분위기와 뒷말 정리하기에 이른다. 특히, 혜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며 아이스크림을 사 오게 해서 영희에게 주려 한다. 환대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한 영옥과 달리 영희는 그 분위기를 좋게 느낀다. 더구나 그 안에는 청각장애의 별이(이소별 분)가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별이와 친구가 된다. 알고 보니 그들에게 장애인은 남다른 게 아니었다. 뒤늦게 영옥을 따라서 온 정준은 모두가 보는데 그 앞에서 영희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동생 영옥 누나와 사귀는 정준입니다”라고 한다.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 특히 언니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반응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이에 영옥은 12살에 부모마저 잃었다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죽을 때까지 내가 영희를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며 놓아줄 때 떠나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정준은 영희의 존재가 헤어질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잘 봐, 내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한다. 오히려 영옥의 손을 꼭 잡는다.

이러한 점은 정준의 동생 기준(백승도 분)과 별이의 사랑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회차에서 달이(조혜정 분)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별이에 대한 연정을 고백했다. 시간이 숙성시킨 사랑이라는 평가가 있었다.²³⁾

다) 제작과정

제작과정에 장애인 연기자가 참여했고, 장애인 연기자와 비장애 연기자의 협업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농인들의 언어를 드라마에 녹여낸 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소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어 번역할 때처럼) 수어도 수어의 문법으로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농인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연구했고, 이 점을 가장 많이 신경 썼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의미점을 남겼다. 이소별은 “제가 촬영 중 ‘액션, 컷’소리를 못 듣는데, 배우님들이 옆에서 알려주시고, 제스처로 대사를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연기할 수 있었다²⁴⁾”라고 언급했다. 어떤 작가에 따른 작품이며 제작 분위기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남겼다.

3) 한계

다른 비장애 등장인물과 달리 영희, 별이는 14회와 15회에 등장하고 다른 회차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맺어지고 만다. 장애의 삶은 완결이 없는데 말이다. 아울러 마지막 장면에서 장애인 별이의 연애가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 가에 대한 에피소드는 더 필요했다. 2회에 걸쳐서 장애인을 중심에 둔 것으로 대단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한 누리꾼은 "소별 님의 등장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 나온 건 드물기 때문에 이제 소별 님을 시작으로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 자주 접해야 사회적 인식도 더 자연스러워지기에 ㅎㅎ 조만간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²⁵⁾ 과연 얼마나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다.

23)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김우빈 사랑, 편견이란 장애 극복이 관건, OSEN, 2022.05.23.

24)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장애 가진 가족들 이야기, 잘 표현해 내고 싶었다", <한국경제 TV>, 2022.05.31.

25) '우리들의 블루스' 장애 편견 극복 정은혜X이소별, <이데일리>, 2022.05.31

이소별은 “사람들이 ‘농인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오해를 갖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농인마다 다르다. 저 같은 경우는 수어도 하고 말도 한다²⁶⁾”라고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이러한 다른 점이 조금 반영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편차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했다. 별이와 영희는 별도로 분리되고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등장하면서 드라마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려 했는지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한편,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가족의 심정을 많이 반영한 면이 있지만, 비장애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이를 나중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정당화하는 영옥의 행동과 대사는 호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영희가 그림을 통해 갈등을 화해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접근이며, 현실의 제도와 시스템에서 멀어졌다. 예술적 방식으로 여전히 도피하고 있었으며 예술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패턴은 여전히 썸이 되었다.

다. 기타.

간간이 다른 드라마에서 장애가 등장했는지 기존의 문제점이 반복되기도 했다. tvN 토·일드라마 ‘슈룹’에서는 성남대군(문상민)이 왕 이호(최원영)의 명에 막역지우 박경우(김승수)에게 왕의 부름을 전하는데 박경우는 시각장애인으로 등장한다. 왜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경우는 “내가 눈깔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가서 그리 전하시요. 나는 눈이 멀어서 호조판서뿐 아니라 별감 나부랭이도 못할 것 같다고”라고 대답한다. 장애인 차별적인 대사가 표현되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판사를 못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성남대군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흉내를 내자 진짜 떨어진 줄 알고 그를 구하려 하다가 가짜 시각장애인이 들통나기도 했다. 진짜 시각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도 살펴볼 점이 있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범죄를 일으킨 소년범들을 보면 공통으로 ‘품행장애’가 연상된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다. 품행장애는 청소년기에 반복·지속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규범·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일시적 일탈 행위를 넘어 범죄를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6)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장애 가진 가족들 이야기, 잘 표현해 내고 싶었다”, <한국경제 TV>, 2022.05.31.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과 함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²⁷⁾ 이러한 보도는 장애의 용어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다. 장애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이다.

2. 영화

가. '복지식당'

1) 특징

영화 <복지식당>은 중도 장애인 재기가 일상에 복귀하려 하지만, 모순적인 장애인 등급과 지원 제도 때문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복지식당'은 정재익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한 영화다. 2010년 음성 꽃동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정재익 감독은 교통사고를 당해 중도 장애인이 된다. 영화의 주인공 재기처럼 중증 장애가 있는데 경증의 5급 판정을 받았다. 감독은 '사건의 80%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다.'²⁸⁾라고 했다.

'복지식당'의 본래 제목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었는데 감독이 마음에 들어 했던 제목이었지만, 서태수 감독은 더 부드럽고 유연한 제목을 원했고, 친근하고 편안한 복지를 생각하다가 영화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식당으로 정했다고 한다.²⁹⁾ 누구를 위한 식당인지 주인공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식당의 모순과 역설이 있다.

2) 의미

가) 제도적 모순

27) 드라마 '소년심판' 속 청소년 '품행장애'... 원인은? <헬스조선>, 2022.03.20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18/2022031801888.html

28) [인터뷰] '복지식당' 정재익, 서태수 감독 - 장애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씨네 21>, 2021-05-05

29) '복지식당' 감독 "진실하게 만드니까 영화가 스스로 움직여요" [쿠키인터뷰], <쿠키뉴스>, 2022. 04. 13.

단순히 저널리즘 관점에서 매체에 등장하는 제도의 미비점들을 지적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다. 장애 등급 판정, 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 대출 제도 등 여러 장애인 지원 정책과 제도들의 모순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감독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설득력과 공감을 얻는다.

나) 이중 소외

이런 모순된 장애인 복지 제도들을 역이용하는 다른 장애인 병호라는 인물을 통해 장애인들 간 힘의 논리를 ‘신랄하게’³⁰⁾ 드러내기도 한다. 병호라는 인물은 장애인을 제도 모순을 이용해 착취, 갈취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장애인을 한결같이 피해자이자 약자 혹은 선한 인물로 그려내는 장애 영화와 다른 점이 분명하다.

감독은 “외형적으로는 장애 등급 심사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비장애인은 알지 못하는 장애인 세계의 기득권과 소외 계층 간의 문제와 실상을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장애인으로 권력적 전위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다) 구성원의 행태

단지 법적 제도적 모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그 법적 제도적 모순의 심화에 연관 주체들이 있다고 본다. 감독의 말대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제도나 장애 등급 심사 제도는 겉으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들인데, 그 제도를 역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들”³¹⁾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장애인 관련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운다.

3) 한계

제도와 구성원의 행태에 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현상의 경험적 진술에 머무른 감이 있다. 주인공은 불행의 상황에 빠졌고, 그 상황은 그 상황 그대로 머무르고

30) [인터뷰] '복지식당' 정재익, 서태수 감독 - 장애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씨네 21>, 2021-05-05

31) [인터뷰] '복지식당' 정재익, 서태수 감독 - 장애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씨네 21>, 2021-05-05

말았다. 성폭행 위험에 빠진 누나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성을 부각하면서 비참한 감정을 유도한다. 더구나, 이런 가해 행위를 한 이는 어떤 응당한 대가를 치러내지 않는다. 주인공의 좌절로 끝난다. 장애인들의 무기력성만 부각한다. 또한,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 영화는 다큐 장르가 아니라 극화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이상적인 지향점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야 더 적절했다. 사회적 연대의 측면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비극적으로 맞춰져 있다.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둘러싼 제도적 실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나. 영화 ‘나를 죽여줘’

1) 특징

연극을 영화로 제작한 드문 사례다. 구체적으로 2017년 한국 초연한 캐나다 연극 ‘킬 미 나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킬 미 나우’는 오랫동안 소수자 목소리를 대변해온 캐나다 원작자 브레드 프레이저의 작품으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불편해도 마주해야 할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장애 청소년의 독립과 성 욕구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가족 간 돌봄 문제 그리고 존엄사에 관한 이슈도 내포하고 있다. 춘천이 배경으로 영화의 두 주인공은 선천적 지체 장애 청소년 현재(안승균)와 소설가이자 대학 시간 강사인 홀아버지 민석(장현성)이 돌봄을 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 현재의 성적 욕구가 된다. 보호자 민석은 어느 새 중도 장애인이 된다. 사고 장애가 아니라 목에서 잘못된 자란 뼈가 민석에게 장애가 된다. 결국, 중도 장애인 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2) 의미

가) 장애 청소년의 자립/독립 생활

사춘기에 들어 성(性)에 눈을 뜨고, 현재는 독립을 주장한다. 이런 과정에 친구 기철이 이바지한다. 기철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 장애와 틱장애가 나타나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현재를 챙기며 또래 정서를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이성 친구나 성적인 욕구에 관한 대화를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또한, 기철과 같이 현재는 독립생활을 모색하지만, 아빠 민석은 이에 반대하면서 대안적 가족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나) 돌봄의 역전

특히, 이 영화는 돌봄 가족이 한 명인 상황을 소재로 삼았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은 2인 구성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영화에서는 다른 영상 콘텐츠와 달리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돌봄의 주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주인공 민석은 아들 현재가 소년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며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보호자가 중도 장애인이 되는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이 경우 돌봄의 중지 문제가 발생한다. 아버지의 중도 장애로 독립을 선언했던 아들 현재는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한다. 돌봄의 역전 현상을 통해 선천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일깨운다.

다) 감정의 절제 현실적 접근

장애인의 성(性)과 사랑, 존엄사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다루며 인위적인 감동 스토리나 인간애를 자극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황적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도 장애인이 되는 아빠의 상황은 그 장애를 넘어 보편성을 갖는다. 아빠의 장애 이후 최후는 불편할 수 있지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사회 통념의 윤리적인 잣대를 넘고 있다.³²⁾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기에 진일보한 점이 있다.

3) 한계

중도 장애인 아버지의 상황을 통해서 돌봄의 역전과 안락사 문제까지 다루기 위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도 장애인 아빠의 상황 심리가 덜 주목된 점이 드러난다. 전과 후의 감정이나 주변인들의 갈등 관계의 변화가 장애 중심으로 더 초점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주변 인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정작 뇌병변 장애인 현재의 생각과 표현도 덜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성적 이야기와 설정이 매우 빈번하다. 이는 장애인 소재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적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32) 성육 눈 뜬 지체장애 아들 마주한 父...남성들 불편해한 그 장면, <중앙일보>, 2022.10.16.

있었다. 고모 하영과 기철의 성적 행위는 물론이고 수원과 민석의 불륜관계, 성적 상상을 자극하며 아버지가 아들 현재의 자위행위를 돕는 장면들이다. 등장인물들은 온통 성을 중심에 두는 듯 성 결핍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다. 그러나 어느 하나 완결되지 못한다. 상황만 있고 담론의 화두는 일깨움으로 진전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들은 지극히 개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한계에 있다. 그들 주변에는 어떤 제도와 기관,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업사의 방식과 결말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빠의 존업사를 위해 장애인 아들의 처지와 관점은 예술적으로 배제된다. 아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아들의 성 욕구와 자립 생활에 관한 화두는 미결로 남은 채 끝났다. 비극적 예술화에 장애 당사자의 관점은 소외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는 장애인이 여러 명 나오지만 단 한 명도 장애인 배우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연기가 아닌 삶의 투영이 중요할 수 있었다.

다. 기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장애인 영화에도 미쳐 개봉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고 미처 일찍 관객과 만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주인공인 영화 '동행: 10년의 발걸음'이 12월 개봉되었다. '동행: 10년의 발걸음'은 혜광브라인트 오케스트라가 걸어온 10년의 기간 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아 관객에게 새로운 시선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극영화에서는 없는 진정성이 담겼다.³³⁾ 혜광브라인트 오케스트라의 창단 과정, 그들의 연습 장면 그리고 열 번의 정기연주회를 거치면서 단원들과 관계자들의 성장사를 다뤘다.³⁴⁾

제2회 할리우드 월간 영화제에서도 베스트 단편 드라마상 수상을 하는 등 지난 11월 현재 영화제 수상 총 40관왕에 오른 '짜장면 고맙습니다'가 화제였다. '짜장면 고맙습니다'가 단편영화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트로피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영화로 손꼽히게 되었다. 애초에 약 50여개의 해외 영화제에 특별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모습으로는 서툴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결혼하는 과정을 실화 바탕의 이야기다. 선천 하반신 마비 지체

33)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영화 '동행: 10년의 발걸음', <문화뉴스>, 2022.11.03

34) 혜광오케스트라 다큐 '동행: 10년의 발걸음', <미디어 생활>, 2022.11.08

장애의 미숙은 컴퓨터가 고장 나 복지관의 남규에게 맡기는데 수고하는 남규에게 미숙이 짜장면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데이트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첫 데이트로 대학로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초밥집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며칠 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진심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연인의 길로 들어서 결혼에 이른다는 내용이다.³⁵⁾ 무엇보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공감을 더 얻었다. 세계적으로도 단편영화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III. 결론.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으로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매우 증가했다.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와 서사를 통해서 호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장애 인식 개선과 현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채널 파워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신생 매체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잘 보여주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실제 장애인 배우들이 출연해서 더 의미를 가치 있게 했다. 다운증후군의 정은혜 화가와 청각장애의 이소별 배우가 등장해 실제 장애인 연기를 펼쳐 진정성을 더했고 작품의 수준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배우에 대한 편견도 나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장애인 배우가 배역을 맡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다.³⁶⁾ 누군가에는 연기이지만 그들에게는 연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 장애인 배우 편견을 깨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여전했다.

이에 비해 올해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등장이 매우 희소했다. 이러한 점은 독보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획력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더구나 KBS는 ‘굿닥터’에서 장애인 캐릭터를 통해 전세계적인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굿닥터’의 법정 드라마 여성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더구나 SBS는 이 드라마의 편성을 거절³⁷⁾하기까지 했으니 근시안이 안타까운

35) 제2의 미나리라는 ‘짜장면 고맙습니다’, 어떤 영화길래, <스타투데이>, 2022.11.08.

36) 뇌병변 2급 장애 길별은 배우 인터뷰 ”장애인 배우에 편견 갖지 말아 달라”, <조선일보 비즈>, 2022.06.07.

37) ‘우영우 대박’ 종영, SBS는 왜 무릎치고 후회했나?, <더 팩트>, 2022.08.24.

일이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무분별하게 장애인 등장 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또 다르게 우려할 점이다.

영화계에서는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복지식당’, ‘나를 죽여줘’ 등이 화제를 불러모았다. 다만, 대중적 지평을 넓히는 연출과 테크닉이 더욱 필요해졌다. 대중 드라마의 흥행 성과가 또 다른 극장 상영 영화의 제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트렌드의 추종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23년에는 드라마는 물론 장애 영화의 활약을 기대 해 본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드라마 장르가 장애 관련 콘텐츠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장애 콘텐츠의 향배를 보여준다. 하지만 글로벌 OTT는 드라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영화와 예능의 선전도 가능하다. 이에 맞는 콘텐츠의 제작은 물론 모니터 수행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부 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불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하나의 에티켓이며, 시민사회운동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취지로 1996년 4월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로 출범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3년 12월부터는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연혁

- 1996. 3. 1대 홍두표 상임대표(前KBS사장) 취임
- 1996. 4. 장애인의 날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선포
- 1996. 4.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출범
- 1996. 6. 각 시·도 협의회 설립 완료
- 1998. 11. 2대 이수성 상임대표(前국무총리) 취임
- 2003. 12.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설립
- 2003. 12. 이수성 이사장(前국무총리) 취임
- 2005. 5.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대구, 부산, 대전운동본부 설립
- 2009. 3.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광주운동본부 설립

○ 사업 내용

인식개선센터운영

교육기관·장애인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보급하여 긍정적인 장애인식 형성

·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1999~)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와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령기 때부터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 주고 장애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형성

· 유아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2018~)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한 후 보급하여 장애이해교육과 함께 또래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1교시’(2005~)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통합교육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물(2008~)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장애인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날’ 방송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배포

· 아름다운 소통(2010~2022)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사회통합지원사업

언론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과 인식개선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

· 모니터 사업(1997~)

대중매체 모니터를 통한 장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고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모니터하고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용어 순화 캠페인 지속적 실시

- 장애관련 기획모니터
-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발표
-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발표
- 올해의 좋은 유튜브 선정·발표
- 장애 차별용어 모니터와 용어 개선
- 모니터 보고서 제작·배포

· 장애인먼저실천캠페인(2000~)

탤런트 정선경, VJ 김형규, '용하다 용해' 만화작가 강주배, 앵커 오수현, 탤런트 백승도, 아나운서 장웅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파급효과 극대화

·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1996~)

장애인식개선과 권익증진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사회통합에 기여

· 500원의 희망선물(2005~2023)

전국의 장애청소년 가정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RC와 장애인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매월 1개소씩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자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표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 기업 및 사회단체 연계 캠페인(1996~)

장애인식개선과 역량강화에 관심있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장애인의 음악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진출의 기회 확대

· ‘뽀꼬 아 뽀꼬’ 캠프(2009~)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과 음악멘토와 각 분야 음악 교수진이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음악가로 진출하는데 음악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 ‘뽀꼬 아 뽀꼬’ 음악회(2010~)

‘뽀꼬 아 뽀꼬’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 또는 라디오로 송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역량강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의 장 마련

· 앙상블(2015~)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 (2022~)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우리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를 통해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술 전시 기회 제공과 전문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ver. 2019년 3차 개정

○ 기본적인 에티켓

1.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장애인도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5. 주춤하거나, 힐끗거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6. 동정 어린 격려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7.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9.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10.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11.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13. 장애를 갖게 된 경위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14.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합니다.
15.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농담은 장애 비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16.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17.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8.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9. 미(美)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21.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2.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23. 행사 진행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24. 자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5.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26. 음식점에 갈 때는 출입구, 화장실 등의 이동 동선과 좌석 배치를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27.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헤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28. 건물의 현관문(회전문, 여닫이문)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줍니다.
29. 지하철,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비워둡니다.
30.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31. 승강기 사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동안 열림 버튼을 눌러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32. 휠체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33.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근무할 때는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3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는 함께 속도를 맞춰 건너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은 정차합니다.

- 36.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현장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37. 복지시책이나 시설이용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전화 1577-5364, 장애인 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담 1644-8295에 문의합니다.

○ 편의시설

- 38.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편의시설을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 39.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는 어디서든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
- 40. 장애인용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비우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 42. 경사로나 보행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 보조기구

- 43.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와 같습니다. 목발(클러치)이나 흰 지팡이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44.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 45. 전동휠체어 뒤에 매달리거나, 사용자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 46. 휠체어를 말없이 붙잡거나 기대지 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습니다.
- 47.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춥니다.

○ 장애유형별

48.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시각적(표정, 동작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합니다.
49.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보여도 끝까지 듣고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50.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마주보고 약간 느린 속도로 입모양을 또박또박 말하며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필담으로 대화합니다.
51. 청각장애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2.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53.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54. 직장 동료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파티션의 높이를 낮추고, 회의일정 및 주요 공유 내용은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55. 청각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문자 신고에 유의합니다.
56.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로 안내합니다.
57. 차량 뒷면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표지가 붙어있으면 경음기를 울리는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립니다.
58.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는 어깨나 손, 팔을 살짝 두드립니다.
59.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원할 경우 수어통역센터,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60.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국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습니다.
61. 간단한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62. 한국수어는 국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공용 언어이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
63.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64.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6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66.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전후좌우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67.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알려주며 함께 건넵니다.
 68. 시각장애인과 음식점에 가면 메뉴와 가격을 함께 설명하며, 음식의 위치는 시각장애인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합니다.
 69.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놓지 말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알립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위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70.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71.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물건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72.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켜줍니다.
 73.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합니다.
 74.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흰 지팡이 없이 걸을 때는 안내자의 오른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반보 앞에서 인도합니다.
 75.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에 흰 지팡이나 옷소매를 잡지 않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지킴이입니다.
 7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디든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77. 시각장애인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때 자기 순서를 놓칠 때가 있으니 옆에서 차례가 되었을 때 알려줍니다.
 78. 시각장애인의 서명이 필요할 때 시각장애인이 손을 잡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79. 시각장애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초성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모티콘 사용을 자제합니다.

- 80. 음식을 먹을 때 뇌병변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81. 뇌병변장애인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경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82.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아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 83.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아인)에게 특정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84.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아인)이 연상일 경우 존칭어를 사용하며, '-씨'를 붙여줍니다.
- 85.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아인)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음식 사진 등으로 설명하여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 86. 자폐성장아인은 특별한 목적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상동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흥내 내지 않습니다.
- 87. 자폐성장아인이 언어적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림, 행동 등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집중합니다.
- 88. 자폐성장아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줍니다.
- 89.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 90. 정신장애인은 일부 활동 및 생활영역에 제한이 있을 뿐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 91. 혈액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에게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투석을 받는 팔목이나 복강부분을 밀치면 위험합니다.
- 92.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
- 93.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능력까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
94.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답을 활용하여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줍니다.
 95. 언어장애인이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96. 내부기관 장애인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97. 장루·요루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탈장 가능성이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98. 호흡기장애인을 만날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용을 자제합니다.
 99.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100. 뇌전증장애인이 경련을 일으킬 때 당황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경련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단어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법적용어 (올바른 용어)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신·불구		장애인
장님·소경·봉사	애꾸눈·외눈박이	맹인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찌따·절름발이·앉은뱅이· 불구자·뽀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관용적 표현

부적절한 표현	대체 표현
장애를 앓다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병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병어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말문이 막힌·말을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하다
병어리장갑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 대체 표현은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

글쓴이 _____

- 배현정 중앙SUNDAY 기자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김철환 장애인단체 활동가
송경제 상지대학교 사회경제학과 교수
김주현 사)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정책국장
백정연 소소한 소통 대표
김헌식 문화콘텐츠학 박사

기획위원 _____

-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이정연 한국방송라디오센터3라디오 PD

2022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에 대한 시선

-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수성 이사장
발행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
(양평동5가, 아이에스비즈타워1차)
전화 02-784-9727
팩스 02-784-9729
홈페이지 www.wefirst.or.kr
디자인 및 인쇄 아임디자인



2022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에 대한 시선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07207)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504호(양평동5가,아이에스비즈타워)
Tel. 02-784-9727 Fax. 02-784-9729 www.wefirst.or.kr